朝鮮日報

夕刊 二十日(月)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金基善

發行所 朝鮮日報社 株式會社

# 叛軍氣勢衝天
# 政府軍遂投降?
## 모록코의叛亂은 다시 카나리아群島에
## 擴大되는西班牙革命

西班牙大統領아자니아氏

【데바라十九日發同盟】十八日未明부터 勃發한 西班牙領모록코의 叛亂은 十九日午後에 至하야 完全히 모록코全土를 席捲하고 首領프랑코將軍은 메리리아에革命本部를設置하고叛亂軍指揮와全領土의 秩序維持에當하고잇다 政府에서 派遣한 軍艦西隻도 叛亂軍에 參加하야 叛徒는 餘勢를모라 對岸알헤시라스에 水雷艇을派遣하야 同市도叛軍支配下에 노이게되엿는데 一方 南部세빌리아 北部바르셀로나等의 主要都市도 不平軍人이 合同起立하야 政府間에 猛烈한 戰鬪를 開始하야 方今全西班牙도 擾亂渦中에 投하게되엿다

【펠고레아(南佛國)十八日發同盟】當地에 達한 情報에依하면 西班牙領카나리아群島에 擾亂이 勃發하야 政府는 步兵數聯隊를 軍艦數隻에 分乘시켜 카나리아群島에 急派하엿다고한다

今回의 叛亂은 左翼聯合의 現內閣에 不滿을가진 右翼諸派의 計畫으로 約一個月前부터 計畫이 進行되어온것이라고한다 그元兇은 農民人民黨首모브레스氏로 모록코、카나리아群島의 叛亂이成功되면 船舶으로西班牙本土에 進出하야 미리連絡이잇는 首都의 軍隊와 協力하야 政權奪取를策하고잇섯는데 마솔王黨의 首領前藏相소레로氏의 暗殺事件을契機로急히行動을 起하게되것이라고傳한다

【지브랄타르十九日發同盟】알헤시라스港의 政府軍은 드듸어 叛徒에게 降伏하게되어 알헤시라스附近一帶는 거의 모록코軍의 勢力範內에 들어갓다 이때문에 지브랄타르、英國官憲은 國境을封鎖하엿는데 이에同地에는 西班牙人多數가 避入하엿다

【탄지에르十八日發同盟】西班牙領모록코로부터 到達한情報에 依하면 叛軍은 이미 메리라、수-타、레츄아等의 諸市를 占據하고 메리라에서 九名 레츄아에서 三名의 死者를 내엇다고한다

【라바트十九日發同盟】西班牙領모록코는 方今完全히叛徒의 席捲하는바되어 十八日夜부터十九日午前에亘하야 市民은 거의 佛領모록코로向하야 避難을 開始하얏다

### 革命軍모록코占領
#### 프랑코將軍司令部에錦旗

【세빌리아十九日發同盟】革命軍總指揮프랑코 將軍은 西班牙領모록코를 中心으로한 멧찬에進入하야 革命의 指揮에 當하고잇는데 十九日세빌리아軍司令部제로노將軍에게 電報로써 如左히 報告하엿다고한다

나는目下 멧찬에서 革命軍指揮에 當하고잇는데 革命軍은 모록코를 占領하고 또 안다로시아、바란샤、발바도르、부울데스、아라곤各州를 爲始하야 카나리아群島바리리오群島도 革命軍에 參加하게되엇다 首都마드리드만은 아직陷落되지 안엇스나 左翼政府는 空軍部隊를 動員하야 無防備都市에 爆擊을 加하고 無辜의 婦女를 殺戮을行하고잇다 革命軍은 斷然 左翼部隊를 殲滅할생각이다

### 政府飛行隊
#### 바르셀로나空爆

【마르세이유十九日發同盟】佛國汽船은 十九日夜 모록코로부터 마르세이유에到着하엿는데 船客의 目擊談에 依하면 西班牙政府는 飛行機로 발세로나 市街를 爆擊하야 同市는 大混亂에 [illegible]는 바르셀로나의[illegible]에進一[illegible]는 [illegible] 할수업시大破하고 또 [illegible]定期旅客飛行機[illegible] 대로 [illegible]하엿스나 [illegible]飛行·困難中이라고 傳한다

# 事態收拾不能으로
# 內閣更迭又更迭
## 總同盟은 總罷業宣言

【마드리드十九日發同盟】카사레스·키로가氏를 首班으로한 西班牙의 左翼聯合內閣은 모로코事變事件의責任을 負하고 十九日總辭職하엿다 急進民主黨首領前首相마르나네즈바리오氏가 後繼內閣을 組織하엿다

【마드리드十九日發同盟】오파루되 바리오內閣은 事態收拾은不可能하다고보아 即時 辭表를 提出하야 海相호스지나르氏가 後繼內閣을 組織하얏다

【마드리드十八日發同盟】西班牙勞働總同盟은 十八日 마드릿드의 放送局으로부터 秩序가回復되기까지 總罷業을決行하겟다는 旨를 宣言하엿다 罷業은 戒嚴令施行地에서 移動的으로開始될터이다

裝을 整頓하야 港內警戒를 嚴히하도록 命令하엿다 確聞하건데 西班牙마라가地方一帶는 戰禍되어 多數의 死傷者를 내엇다고한다 同地方으로부터는 主로 婦女子의 避難民이 지브랄타르에 殺到中이다 多數의 英米人도 自動車로 避難中인데 自動車에는彈痕을 남겨 西班牙國內의 慘狀을 말하고잇다

### 叛亂報道事實無根
#### 政府라디오로發表

【마드리드十九日發同盟】西班牙政府는 各地의 叛亂蜂起의報에 接하야 十九日 數回에 亘하야 라디오를 通하야 事實無根이란 旨를 發表하고 人心安定에 努力中이다 政府發表는 如左하다

발세로나、세비리아、마라가各地의 叛亂軍은 政府軍에 依하야 鎭定되엇다 발세로나에서도 叛亂軍將校多數가 逮捕되고 叛亂軍의 大砲五門을政府軍이 鹵獲하엿다 叛亂軍의 報道는 모다 事實無根이다 政府는 如何한 事態에 對해서도 善處할 覺悟이다 市民의 愼重한 態度를 要請한다

### 西政府、陸海空
#### 鎭壓部隊急派

【마드리드十八日同盟】西班牙政府는 모로코叛亂鎭壓을 爲하야 十八日 陸海空三軍에 亘하야 鎭壓部隊를 急派시킨다는 旨를公表하엿다 通信檢閱은 極히 嚴重히 行하고잇다

# 獨裁化하는단치히市
## 反對派彈壓코저 突然緊急令發布
## 憲法改正次人民議會도解散?

【단치히十八日發同盟】단치히自由市參議院議長알레르·그라이저氏는 十八日官報로써「公共의 安全과 秩序維持」에關한 緊急令을 發令하얏다 그內容은 如左하다

一、政府는 現行法으로서는 反對黨諸派의「不謹愼한 人心煽動」을 阻止하기는 不可能하다고 思量하고 本緊急令을發布하기로 決定하엿다

一、모든 團體는 그役員 又는 宣傳을 할境遇에 이解散을命함

一、集會 新聞發行 武器携帶 防檢察等에 關하야 警察當局이 取하는 手段에 對하야 上告의 權利를 廢止함

一、搜防檢察의期間은 從來三週間이든것을「六個月間」으로延長함

또 人民議會議員으로 新聞의論說委員이 되지못함 이에 反할 境遇에는 當該新聞의 發行을禁止함(新聞法令復活)

一、猶太人의 動物을 犧牲하는 儀式을禁止함

【단치히十八日發同盟】聯盟에 純粹한 綠狀을 抛擲한 단치히自由市參議院議長그라이저氏는 가만히第二의 爆彈을 準備中이던바 俄然個人의 自由 言論의 自由에 大彈壓을 行하야 自由市憲法으로 保障된 主要한自由를 破棄한 緊急令을 發布하얏다 右는 總近 人民議會를 解散하고 總選擧를 擧行하야 三分二以上을 獲得하고 憲法改正을 斷行하려는나치스의非常手段이라고보인다 (寫眞은 그라이저氏)

### 단치히問題로
#### 佛聯盟에提訴

【巴里十八日發同盟】단치히自由市參議院議長그라이저氏가 緊急令을 發하얏다는 報道는 佛國政府에 衝動을與하야 政府는目下 對策을協議中인데 聯盟에提訴[illegible]

# 進退를決定할
# 陸相重大進言
## 廣田內閣公約無視로

【東京電話同盟】陸軍에서는廣田內閣의 出現은 二、二六事件이라는稀有의事件을 背景으로하고庶政一新을 그使命으로한點에 鑑하야 廣田現內閣이 못까지 그使命遂行을期待하고 國策審議를重視하야 그進展如何로는 積極的으로 寺內陸相으로부터重要發言을하려고 待期의 姿勢를取하고 잇다 即 廣田內閣은 組閣以來여번이나 聲明을 發하야庶政一新斷行을 國民에게 公約하엿슬뿐아니라 寺內陸相의 進言에 對해서도 이實現을 約束한事實이잇서 陸軍은 이를 信賴하고 그實現을 待望中인데 적어도 國策이라고하는以上 相當한 經費를 伴할것은 當然한바 議會의 協贊을 要할 必要가잇서 可及的速히 그實現을 圖하기는 無理하다고 明年度豫算編成時期까지 기다리지 안흐면 안되게되엇는데 豫算編成期가 되어도 아직 實行할 國策이 決定되지안코 豫算에 編入되지안코 못나는데잇서서는 廣田內閣은 明年度에잇서서도 何等 볼만한 庶政一新과 그實現이 업다고 結論되므로 이때야말로 重大使命을 擔任의 能力이 업는것으로보고 引責할밧게업다고하고잇는모양이다 따라서明年度豫算을 如何히編成할는지는 廣田內閣에 將來를卜할 試金石이라고도 할것이다 寺內陸相은 이것을 機會로 陸軍과 倂行할 庶政一新의 實現을 要求할려임으로 廣田首相、各閣僚의 態度를 監視하고잇는데 陸軍이 主張하는 革新政策은 現內閣으로서는 到底히 그實現을 庶幾할수업다는 豫測이 선때에는 寺內陸相은 國務大臣의 一員으로 그職責을 다할수업는것은 困難하다는 見解에서 그 進退를 明白히할 覺悟이며 部內에도 그意向이 强하게 움죽이고 잇스므로 八月에 國策의 具體的協議를 行할때 適當한 時期를보아 寺內陸相으로부터 重大發言을 獻하야「進退」의 決定的態度를 明白히할것으로 觀測되어 그態度는 注目되고잇다

# 余漢謀軍先鋒隊
# 今日中廣東入城?
## 廣東諸將領 余氏에게時局收拾을電請
## 兩廣連絡은全然杜絶

【廣東二十日發同盟】余漢謀軍의 先鋒部隊一團 第一軍副軍長李振球軍은 豫行軍을繼續 二十日朝 廣東郊外에到着하엿는데 今日中 廣東에 入城할豫定으로 郊外에 駐屯하고잇스며 其他部隊는 粵漢線으로南下中이다 李振球氏는 入城과同時에 第五軍長繆培南、廣西軍司令林偉成、廣東第七軍副司令張達英氏等과 會見하고 廣東全省의 實權을指揮할터로 余漢謀氏의入城은 一兩日後로觀測된다

【廣東十九日發同盟】十八日深更 陳濟棠氏의 下野通告에 接한 余漢謀氏는 即時 그善後策에 關하야 協議한結果 英德一帶의 廣東第一第二軍에게 南進을 命하엿다 第一第二兩部는 이에이어서 二十三日 軍田到着 二十四日朝 廣東에 入城할 豫定이다 陳誠氏는 同時에 中央軍七萬을 韶關廣州鐵道沿線에 配置하고 廣東軍의 鎭壓에 當할터이다 또 李宗仁氏와 白崇禧氏의 第四集團關係는 斷絶된形勢로 第四集團軍 特別辦事處는 十九日閉鎖되고 廣西派要人은 發廣을서둘고잇다

【廣東十九日發同盟】張達 蓄任 繆培南等廣東諸將領은 十九日 余漢謀氏에게 廣東治安은 吾等이 保持하고잇다 貴下는 一日이라도 速히 廣東에來하야 時局收拾에 當하기바란다고 通電하얏다 今朝來 東江方面에서 漸次南下하여온 陳紹周氏麾下의 警備軍은 一萬에 達하얏는데

### 廣東市內
#### 比較的平穩

【廣東十九日發同盟】陳濟棠氏의 下野는 十八日夜 開會된 廣東派最後의 軍政聯合會議席上에서 正式決定되엇는데 이와同時에 繆培南氏를 廣東治安維持司令에 任命하엿다 繆培南氏는 部下의第五軍第十三師憲兵隊로써 治安維持에 當하고잇다 退却中인 廣東軍第三第四兩軍은 祁陽을中心으로한 鐵道沿線의 第二反 廣東部一帶에 또專漢部는 西江으로부터 南方에移動中인데 이것이 完了되는대로余漢謀軍은 繆軍과 交代하야 廣東에 入城할터으로 繆軍의一部는 이미 撤退를開始하야 目下廣東市內를通過中인데 同軍은廣三鐵道經由 西江方面에 移動中이오 公安局과 憲兵司令部는 十九日正午 安民布告를發하고 治安妨害者를 極刑에處한다는旨를 發表하엿다

### 蔣氏廬山서
#### 西南中央化講究

【南京十九日發同盟】廬山에 飛去한 蔣介石氏는 當地에서 西南問題에 關하야 探配를 휘날리고잇든바 一擧에 西南의 中央化를 圖하기 爲하야 對策을講究中인데 그一段落을 기다려親히 廣東에 赴하야 中央의 威信을 示할것으로 보인다

# 廣西軍最後決戰?
## 但沒落은時期問題

【廣東十九日發同盟】陳濟棠氏脫出後의 廣西派首腦部와 李宗仁氏는 그結果如何에 不拘코 廣西軍은 中央에對하야 抗戰的態度를 持續하겟다는 旨를 聲明하엿다 廣西軍이 廣東軍과 協力하야 廣東市內를 目標로 集中하엿든 目的은 李宗仁軍과 協力하야 廣東省第三獨立軍을 死守하려는것으로 一方桂林方面으로부터 一軍에 湖南省南部地區의中央軍의 後方을 遮斷하야 乾坤一擲의 勝敗를 決할 計畫이것은 明白하다 그러나 廣東軍이 退却하야 省境을 굿게하거나 또는 死中에 活을 求하거나 廣東湖南의 一帶를 攻擊하려는狀態가 되엇는데 如何튼 貴州、湖南、廣東方面에 包圍된 三十萬의 中央軍에 對하야 李白兩氏가 如何히 畫策하더라도 結局은 陳濟棠氏의 轍을 밟을 것이며 그沒落은이제는 다만時期問題로보이게되엇다

# 自壞作用促進이
# 中央의對廣西戰術
## 西南包圍의雲南湖南貴州에中央軍强化코
## 當分間은傍觀的態度

【南京十九發同盟】中央의 廣西에對한 態度는 各方面으로부터 注目되고잇든바 目下로는 中央은 即時 廣西에 對하야 實力을 行使하야 解決을 急히하지안코 廣東의 中央化를 促進하는同時에 爲先 廣西省을 包圍한 湖南、貴州、雲南各省의中央軍을 强化함에 依하야 廣西의 自壞作用을 促進하려는 方針을 取하기로 決定하얏다 따라서 廣西側이 積極的으로 挑戰的態度를 取하지안는限 中央側은 放任的態度를 取하기로決定하얏다 그러데 李、白兩氏의 過去數年間 廣西省의 治績에關해서는 中央도 十分 認定하고 잇서서 陳、白兩氏의 下野를要求하는것은 省政에 急激한 變化를 與하는 拙策이라고 廣西에關한限 當分 可及的 寬大한 態度로써 臨할模樣이다

### 李宗仁氏廣州에飛行

【香港十九日發同盟】李宗仁氏는 十八日 最後의 連席會議에서 極力戰爭繼續을 主張하엿스나 容認하는바되지안코 [illegible]하고 同日午後三時 飛行機로 廣州에 飛行하엿다

# 廣東軍改編이
## 今後에남은問題

【上海十九日發同盟】陳濟棠氏의 下野로 廣東에 關한限 時局은 一段落되어 남은問題는 余漢謀氏에 依한 善後處置와 蔣介石氏가 軍權統一次 어느程度까지 廣東軍을 收編縮少할는지에잇다 그러나 蔣介石의 態度如何로는 局部的衝突 又는 內紛의 憂慮가 업다고 할수업다 萬若 蔣氏가 過渡辦法으로 廣東將領을 暫時的으로 認定하더라도 余漢謀氏를 第二의 陳濟棠이 되게하지안키 爲하야 逐次廣東軍을 爲始하야 各方面에 亘한 徹底的인 中央軍權工作을 斷行할必要가잇서 蔣氏今後의 取捨工作은 매우 注目할만한것이잇다

### 陳濟棠氏香港上陸

【香港十九日發同盟】陳濟棠氏는 昨日 最後의 連席會議에서 下野를 決定한後 午後五時 魚珠砲臺로부터 軍艦海虎를 離粵하야 同艦으로 即夜深更 香港에 到達하엿다 今朝 香港政廳으로부터 派遣된 小型艦艇에 乘換하야 當地에 上陸하엿다

[illegible]內를通過中이다 同地에 碇泊中인日本軍艦龍驤는 十八日未明에 陸戰隊를 上陸시켜領事館警察當局과 日本人保護에 當하엿는데 市內는 方今 比較的 靜穩하다 그리고 廣東券은 戰爭終了後相當으로 今朝 十六弗五十仙으로回復되엇다

### 緊急發令에
#### 波蘭政府는靜觀?

【알소우十八日發同盟】波蘭政府는 단치히 自由市參議院議長그라이저氏의 緊急發令에 對하야 目下 事態의 推移를觀望中인데 自由市內의 黨派的紛爭에 끈치는限 不干涉態度를 維持할것으로 보인다 政府當局은 말하되 단치히 自由市의 紛爭은 나치스政權이 確立한때 消滅하엿고 問題가 自由市內의黨派的紛爭에 끈치고 波蘭의權益에 影響을及하지는 안는限靜觀的態度를 取한다 이에對하야 反對派는 政府의軟弱을非難하고 權益擁護手段을 講究하라고主張하고잇는데 베크外相은 [illegible]로부터의 歸途에 伯林에서 [illegible]氏와 會見하고 또 自由市問題에 關한 意見을 [illegible]하고 다시同外相은 단치히에駐在中 波蘭外交代表 [illegible]스키氏와 會見하고 또 自由市波蘭高等辦務官과 會見하고 參議院長그라이저-氏로부터「反對派에對한 緊急令施行은 自由市의 國內에서 行하고 波蘭의 權益을 損傷하는일은 決코업슬것이다」라는 保證을 엇엇다고 傳하고잇스므로 今回의 그라이저-氏의 非常手段에 對하야 波蘭政府는 이미 諒解한것이라고한다。

### 富寧電氣社長에
#### 竹內咸北知事就任?

富寧水力電氣의 社長就任問題는 關係方面에 再次知事級의 異動이 豫想되고잇든바 同社創立準備次社長決定을 急히行하야 今週中에 異動을 發令할터인데 同社長으로 內定되엇든 土師慶南知事는 健康 其他關係로 民間入을 斷念하게 되엇스므로 咸北知事竹內健郎氏가 勇退하야 同社長에 就任할것으로 보이는데 同氏는 要務차 來京하야 總督府首腦部와 懇談한結果 確定的이된 模樣이다 右에伴하는 異動은 小範圍에 끈치고 後任知事에는 兒島總督府會計課長 佐伯京畿道內務部長이 有力視되며

### 人事·集會

▲徐椿氏(本社主筆) 講演次二十日夜十時五十分京城驛發湖南方面에出張

### 八面鋒

◇協定이라는 끈으로 擴大利害를 얽기는하엿스나 帝政復舊派가 레바-게서活躍。

◇小協商國側이 眼死로反對할것은 明若觀火이나 恐獨病者인佛國으로보면 獨墺合倂보다는조홀노릇。

◇이角度로 볼때 합지라도 墺國問題의 結着은 獨佛衝突의導火線이안될가。

◇海峽條約이成立되얏스나 이번에는 火藥庫爆發防止를爲한 維也納會議를 열게될順序。

◇慶北에 供한國策이凡三十餘件 그豫算도 三十餘億。

◇邁出한사람이라할지라도 自在할것、馬場藏相의 限度가 求索거리。

절대적 無鉛의 현대적 最良品

우리가타고난美를完全히나타내고더욱艶麗하게하야、우리의雅麗한살결에꼭마저서은근한淡化粧用으로無二의現代的水白粉입니다。

三好水白粉 (삼 호 수 백 분)

三好煉白粉 三好크림 三好粉白粉 三好化粧水 三好國粹白粉 三好香油 三好香水 三好모마-드 三好頰紅 三好口紅 코리아石鹼(金리아) 三一石鹼 朝鮮石鹼

製品五十餘種 製造本社 京城府昭和町一五九 三好化粧品株式會社 電光③一七二七 振京一五九五八

朝鮮料理 賞春園

納涼氣分滿點한

雅淡한都會를떠나山水와凉風의佳境을차저東小門外로!

東小門外貞陵 · 電光二六六四番

父母를차저五十年哀切한아들의呼訴

人生最大의悲劇

本人의生父李基○은本人四歲時(距今四十七年)에身邊事情으로本人을버리고不知去處가되신後故崔基○氏의收養을받어崔姓行世를하여오는바本人十三歲時에養父母마저別世하고보니天倫의使然이라晝宵로生父母를그리옴이甚切하나生父母의其後消息이于今杳然한지라本人은現在異域奉天에서多少의蓄財가잇스되人子之道에生父母의낫을모르고生死를不知하니實로一生의恨이라幸히父母가生存하섯스면速히父子相逢의깃븜을갓게하고本人生父母의消息을傳하야주시는분이게시면厚謝를進呈하겟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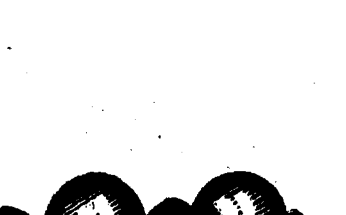
照會하실곳은左記와如함

京城府光化門通遞信局工務課電氣係 崔吉泳宛

滿洲國奉天木曾町一七 朝鮮新聞支社 崔振鏞宛

눈은學問의「窓」

姿勢는똑바로、眼鏡은正確



各眼科病院御指定

大學堂眼鏡店

眼鏡·双眼鏡 カタログ進呈(要二錢)

京城本町二丁目 電話本局②二三七五 振替京城一一二九

當選謝禮

本人等이今般開城商工會議所議員에當選되엇사옵기有權者여러분의一般有志에게紙上으로謹謝하나이다

(無順)

朴鳳鎭 金天浩 林漢璡 金奎昇 孔鎭泰 林鎭裕 李鎭敎 金在銈 朴尙愚 崔仁鏞 八本右一

開城電氣株式會社 高麗蔘業社 開城印刷株式會社 松都殖産株式會社 開城魚菜合資會社

金銀

地方注文은代金引換要先金

金銀賣買合資會社

[illegible]大門通一丁目 電話[illegible]一三五八[illegible]番

# 失攝과 氣溫關係로 市內에 赤痢猖獗

## 傳染病全患者의 六割을 占領

## ◇…大多數는 幼兒들

경성시민의 보건을 위협하는 부서운전염병중 적리(赤痢)는 날로 점점심하여가고잇다 유월부터점차창궐될그세를 보이고잇더니 칠월에들어서서 부쩍늘면서 하로에 적으면 삼사명 만흐면 칠팔명식 새환자가발생하야 시민들을 한켜하든중 지난십팔일에는 하로에십사명, 십구일에는 십일명의신환자가 또발생하야 십구일까지의 전염병환자 한계일백사십륙명중 구십칠명으로 전염병환자의륙할을부가 적리환자를점령하게되엿다 이가티 적리환자가 급격히 발생하기는 근래에 드문 긔록으로 금후 더 발생될 긔세가 보임으로 경성부위생당국에서는 방역선전에 눈코뜰사이 업는지경이다 그리고 환자는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이라는점이 더주목되는바인데 이가티 적리환자가 만히 발생하는 리유는 큰일부터 며웁다고 함부로 어름가튼것을 먹는중에 불결한것을 만히먹게되고 또밤에잘때에도 이불을 잘덥지안코 자다가 배를압케되다가 마침내는 큰일을저질르게까지 되는것이라고한다 일반가정에서는 소위청량음료수며 실과등을 주의하여야하며 또밤에 차게자지안토록 각별한 주의를할바이라한다

# 淸涼飮料를 嚴調 防疫陣徹底强化

## 府衛生課와 各署의 協力으로

적리환자가 의외에도 만히 발생하야 부민을 위협하고 잇슴에 부위생과에서는 경찰과 협력하여 방역에대한 여러가지 협의를하고 하로밧비 적리를 구축코저 힘쓰는중인데 그방법으로는

一, 환자가 발생한 집에는 철저한 소독을하고 동시에 전가족에 대하야 변검사를하고

一, 그외의 방법으로는 시중의 청량음료를 파는 빙수가게나 『아이스·케익』가게등을 일일히 림검하야 불결한것은 당장 처리케하며 파일가게가튼곳에서도 부패한것등은 팔지못하도록 엄중히 단속하고 또 행상들도 단속하기로 하엿다。

그리고 개업의사간에는 적리환자를 발견하고도 그대로 집에두고 치료식히는것이 만흠으로 그런것이 업도록 곳전염병사에 입원식히도록 극력힘쓰라는주의를하야 적리퇴치에 각가지로힘쓰다하고잇다

# 第二太勞事件 覆審公判開廷

제이태로(太勞)사건피고 장회건(張會健)등삼명에대한 복심제일회공판은 이십일오전열시부터경성복심법원에서 적(荻)재판장주심, 궁정(宮井)검사관여, 방청금지속에열리엿다 사실심리에들어가서 장회건부터 심리를시작하다가 오후에속행하기로하고 열두시십분전에 일시 휴정하엿다 그리고 당일출정한피고는 다음 세명이다

◆張會健(三三)◆朴世榮(二九)◆宋成寬(二九)

# 飛乘타가負傷

십팔일 오후열시 오십분경에 시내 종로이정목 전차 정류장에서 시내 현저정(峴底町)사십륙번지의 사백오십삼호에사는 경성지방법원 집달리사무소 사무원인 리경준(李慶濬)(三〇)이가 전차를 기다리든중 동대문에서 서대문쪽으로가는 이백오십팔호전차가 만원이되여 그대로가는것을 뛰여올라 승강대에 매여달렷는데 차장 유긔동(柳基東)(三三)이가 위험한것을알고도 문을열어주지안허서 파화문압편국압헤서 드듸여 팔긔운이빠저서 떠러저 엽구리와 얼골에 부상을 입고 오니가 두개나 부러저서 부근광중(廣濟)병원에 입원하엿는데 소관종로서에서는 뛰여오른사람도 잘못이겟지만 차장이 위험함을알고도 문을열어주지안흔점에 대하야 차장을 엄중설유하엿다고한다

# 먹기내거 "麻雀賭博" 原審대로 無罪!

## 廿日、高等法院에서 確定判決

일이심에서 모다무죄판결을받고 검사의상고로 고등법원에까지너머오게된 소위신사마작도박사건 피고 대구지방법원사무관(廣州)지청 현직판사박종호(朴鍾鎬)등열여덜명에관한언도공판은 이십일오전열한시이십분 고등법원에서 화두(富田)재판장주심 산택(山澤)검사관여미테 열엇는데 재판장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이내리여 원심판결대로 무죄로확정되엿다 상고기각리유는 피고들이직접금전을따기를목적한것이아니라 오락으로마작을하면서 그자리에서먹은음식대의부담자를 또는부담액을 엇이고진에따아 정햇다고볼미타당함으로 형법제일백팔십오조 단서(但書)에따라 일시오락을하기위하야 물건을거른것에해당한것으로 인정함이지당하야 도박죄를 구성치안는다 따라원심에서 피고들의 행위가그들의 신분으로보아 사교로 한것이고 도박이아니라는 리유미테무죄판결을 내린것은 조금도 법률적용에잇서 틀림이 업다는것이다

# 無免許運轉手

면허도업는 운전수가 사고를내고 도망한사건＝십구일 오후열한시경에 시내 통의정(通義町)칠번지의일호 경성부운 관사압헤서 효자정(孝子町)으로가는 일백십호전차 뒤로부터 달려오던 어떠한화물자동차가 전차 운전대를바다서 백여원어치파손을 입히고 이통에 머리를다처서 피를흘리는 인부를불로친채 그대로 도망하여 버렷다 다행히 전차승객에게는 아무 피해가업섯는데 이보고를밧은 소관종로서에서는 그말성자동차를 조사한결과시내세교정(細橋町)일백팔번지 금강(金剛) 벽돌공장소유의 경(京)오천칠십사호차로 운전수는 시내아현정(阿峴町)일백오번지의 십팔호 진영선(陳永善)(二七)으로서 면허장도업는것이 판명되엿스며 가리타고가던 리춘원(李春元)(二三)이라는 로동자가 머리에부상까지입은것이 판명되엿는데 경찰에서는 엄중처벌할모양이다

# 連鎖店을背景삼아 "赤友社"를組織活動

## 取調의進行따라 複雜多端한內容判明

## 西大門署事件의 續報

긔보＝시내서대문서 고등계에서 계속취조중이든 류광호(柳光浩)(二〇)등 여섯명에관한 적색비밀결사사건은 취조를 진행함에딸아 점차그조직적 륜곽이 뚜렷하여지고잇는데 즉 이사건의지도자격인점이 류광호는 다년간 해외에서 공산운동에 종사하고 잇든인물로 수개월전에 중대사명을띄고 조선에잠입하야 조선공산당재건을 목표로 시내 각 공장로동자와 상점의 점원들을획득하야 조직의 모체(母體)로서 위선 적우사(赤友社)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한것이라고한다

그리고 이번사건의 내용이특이한점은 아직조선에서 일즉이 좌익운동자들이 손을대여보지못한 의외의방면에 그조직의 그물을 얼근것인데 즉 류광호는 모백화점의 련쇄점이 전조선적으로 떠저잇는데 착안하야 일즉부터 긴밀한련락을 취하야오든 부산초량정(草梁町)에거주하며 모백화점부산배급소에 근무하는 김명룡(金命龍)(二〇)으로하여금 각 련쇄점과련락을 취하야 동지를획득하게 한점이라고하는데 취조결과는 상당히 주목되고잇다

夏休畫報

—回—

(右) 放學된 學校生

(左) 故鄕가는 手荷物

(下) 歸鄕學生으로 雜沓한 프렛트·홈

# 男女學生이 기대리든 夏休는今日부터

## 故鄕으로 山으로 물로!

◇…명일은 칠월이십일일 이날부터의여름을 두고각학교는 매일공일이되고각관청은 매일반공일이된다 더위에 시달리든 학교의생도, 학생들이 기다리는 하긔휴가가 이때에 시작되며가관청에도 하긔휴가에딸아서오전근무가된다

◇…경성에서는 경성부관계의초중등학교를 위시하야 기타 공사립 남녀중등학교가 대개 이날방학이된다。 경성부 관계로는 초등학교는 이십일일 부터 팔월이십일까지중등학교는이십일일부터 팔월삼십일일까지 일개월간이다

◇…전문학교는 이보다 먼저 칠월십일에서부터 모다 방학이되여서 발서고향으로 또는산으로 물로 서울을떠난지오래고 이제중등학교까지 마자방학을 하게되니 학생도시의 서울은이제부터 식구가 줄게된는셈이다

◇…철도국에서는 휴가로 집에돌아가는학생을 위하야 특별렬차까지 운전케되는데 작금의 경성역은고향에돌아가는 남녀학생으로 대만원 남으로 북으로 그리운고향을찾처서 물밀듯이 려가는학생이 벌처다

# 少女兩名溺死

## 더위서沐浴하다 더위에복겨 물에犧牲

가물이나흔 뜻기에도 애처러운 인정비극―부외광장리(廣壯里) 삼백이십이번지 김재우(金在羽)의조하딸 정히(貞姬)(八)와 이웃집 삼백이십륙번지 김윤남(金允男)(八)이란 두계집애들은 이상하도 무더운 작 일요일오후일곱시쯤되여 동리압 한강에나가 목욕을하다가 어린윤남이가 잘못하야 깁흔데빠지자 정히가구하려고 따라드러갓다가 그만부참히도 모다죽고말엇는데 두아이가 손목을마조잡고 강가로놀러나간채 밤이어둡도록 도라오지안허 집안사람들이 연방일대를대수색한결과 시체로변한 정히는 곳차젓스나 어린윤남이는 아직 시체조차 찻지못하고 부모들은 급변에눈물도 흘리지못하고 다만원수가튼 한강을마드려다보고잇다고한다

# 千尺地下에瓦斯爆發 十二名生死不明

## 救出된二名의生命엔別無異狀

## 十九日、慶興灰岩炭坑의慘事

십구일오전 열한시삼십분경 함북경흥군상하면(慶興郡上下面)에 잇는 조선석탄공업주식회사아오지(阿吾地)광업소 회암탄갱(灰岩炭坑)의 일천사백팔십척 지점에서 광부십륙명이 작업중에 돌연메탄까스가폭발하엿다 그로말미암아 십륙명의 광부가운대에서 세명은곳구출되엿는데 다행히경상이여서 생명에는 별로이상이업섯다 그리고그남어지 십삼명은 생사가 전연 불명하야 목하그구출에 노력중이며 위선 광산내부의공긔를 환긔식히지안코서는 구조해낼방법이 업서서 극력 구조작업을하고잇스나 원체땅속으로 일천삼백여척의 기픈곳이기때문에 빨리 구해낼수가업서서 마음을조이고잇다한다

# 海州强盜犯求刑

【海州】 해주서부일대를 횡행하면서 전후여섯번이나 행인과농가를(毆打)하야 주인을위협하고 찌르고 대금을털는등해가지고 신흥괴롭히든범인이잇서 한동안 세간의이목을 놀내게하든 해주상인강도(海州商人强盜)사건의피고

海州邑北幸町二五一番地 崔興兆(三〇)

海州邑上町一四六番地 金秋善(二〇)

두명에 대한구형공판은 지난십구일 해주지방법원형사법정에서 석천(石川)재판장주심마리(李)、이천(二川)판사의배석 상량(相良)검사의간여미테 개정되엿다 개정벽두에 재판장으로부터 판에박은듯이 피고의주소성명을묻고 사실심리를맛치자 립회검사로부터 준엄한논고와 동시에다음과가티 각각구형하엿든데 언도공판은 오는이십사일이라한다

金秋善 懲役十三年求刑

崔興兆 懲役十年求刑

어린이의선약 小兒肝氣散 京城阿峴 本舖 普生藥房

# 運動競技

## 留學生럭비 培材와 無勝負 14對14의 接戰

東京留學生럭비團 培材俱樂部의歡迎戰은 十九日午後 五時半부터 京城運動場에서 金容先(主審)金奎東、金始榮(線審)三氏審判아래 留學生軍의키ㄱ오프로 開始된바 兩軍의白熱戰을 演하야 各各一트라이 三트라이로 結局十四對十四의 無勝負로 마치엿다

【留學生軍】 FW HB TB FB [illegible]

【培材俱樂】 FW HB TB FB [illegible]

## 全朝鮮水上 京城軍優勝 昨日開城풀에서

開城府體育協會主催의 第二回全朝鮮水上競技大會는 十九日午後一時부터 開城府營풀에서 擧行하바 六種目의 同大會新記錄을 作成하엿스며 人氣의 焦點이든 百米自由型에는 昨年의 優勝者 京城水泳同友會軍이 同大會新記錄으로 逆二年優勝하엿다

【平泳二百米】1盧貞鎭(京城同友)三分四秒八 2崔殷燮(開城研友)3鄭壽榮(同上)

【自由型百米】1金載榮(同友)一分一秒2金仁洙(仁川) 3李[illegible]相(徽文出)

【自由型八百米】1李殷鎭(同友)一二分三〇秒2朴性用(徽文)3金洪鎭(松友)

【背泳百米】1秋成永(徽文)一分二三秒(大會新記錄)2盧貞鎭(同友)六分五七秒 2崔殷燮(研友)3

【自由型二百米】1金載榮(同友)二分五二秒 2金仁洙(仁川水俱)

【自由型千米】1李殷鎭(同友)一六分六秒五(大會新記錄)

【背泳二百米】1秋成永(徽文)三分三秒五 2吳[illegible]永(同友)

【平泳五百米】1盧貞鎭(同友)九分一九秒八 2崔殷燮(研友)

【메드레이[illegible]人二百米】1李明燮(徽文)五分四十秒(大會新記錄)2金鎭(同友) 3金石永(仁川水俱)

【自由型四百米】1李殷鎭(同友)六分一六秒(大會新記錄) 2朴性用(徽文)

【四百米[illegible]】1京城水泳同友會(金鎭、李殷鎭、金載榮、林承日)四分五三秒二(大會新記錄)2全徽文軍(秋成永、朴性用、李鍾相李明燮)

## 留學生對平壤戰 廿四日、光高球場

【平壤】東京留學生蹴球團은二十三日午前 平壤에到着하여 二十四日午後一時부터 光成高普球場에서 平壤[illegible]과 對戰하게되엿다 이날에는 主催者[illegible] 紅白試合이잇슬터이다

## 白友庭球軍三敗

東京留學生白友庭球俱樂部는 十九日午後四時半부터 西大門町[illegible]코－트에서열린바 白友軍은 [illegible]俱樂部軍이 第二라운드에서 惜敗하엿다 그리하야 白友軍은三戰三敗의 戰績을 남기고 十九日午後十時五十分 京城驛發列車로 第二訪問地인 黃海道海州로 向하엿다

## 女子排球＝全朝鮮女子排球選手權大會及 京城少女排球大會

全朝鮮女子排球選手權大會及 京城少女排球大會는 來廿一日午前九時부터 龍山鐵道局코－트에서 擧行할터인데 各校對陣은 다음과갓다

◇少女部

A 龍谷高女B對京城女高普B

B 淑明女高普對第二高女C

◇女子中等部

A 龍谷高女對第一高女

B 同德女高對第二高女

C 京城女高普C對龍谷高女C

D 第二高女B對同德女高普B

◆準決勝＝A勝者對京城女高、B勝者對元山高女

◆決勝＝A勝者對B勝者

## 少年排球戰績

朝鮮排球協會主催의 第二回少年排球選手權大會는 十八日午後二時부터 龍山鐵道局코－트에서第一高普、龍中、同寄宿舍、普成、京師等이參加한가운데열렷는바 다음과가튼 戰績으로 龍中寄宿舍가 優勝하엿다

◇第一回戰

龍中2(21 20 21 / 17 22 17)1一高

◇準決勝戰

龍中寄2(21 22 / 13 20)0京師

普成2(21 21 13 / 4 6 21)1龍中

◇決勝戰

龍中寄2(21 21 / 17 14)0普成

## 떼杯獨濠一勝一敗

【워싱톤十八日同盟】떼비스·컵 인터－獨濠對濠洲戰第一日은 十八日워싱톤에서 二試合을行한바 戰績은 다음과갓다

크로포－드(濠)6－2 6－2 棄權 헨첼(獨)

폰·그람(獨)11－9 6－4 4－6 6－4 퀴스트(濠)

## 天氣子報

概況 七六二粍의高氣壓은小笠原島附近의海上으로부터 朝鮮半島의西岸에 突出하야 滿洲方面은 氣壓이低下하엿다。 滿洲와國境及中部以北의 西岸은曇 東岸及南朝鮮은晴 木浦는안개가잇고 琉球諸島는 晴曇不定 北海道는 안개가잇다 氣壓配置는 明廿一日에도 變化가업슬것임으로 晴曇은不定이다

豫報 晴、曇

昨日最高 三〇度九

同 最低 一九度二

今朝最低 二〇度

今日正午 二七度

中風·高血壓·神經痛은 血液의混濁이因

血液을淨化하면根本的으로完治

肩背痛·頭痛·耳鳴·健忘症·眼氣衰弱·動悸·眩暈·喘息·便秘不眠·神經衰弱·高血壓·動脈硬化로부터突然腦溢血과心臟痲痺로生命을빼앗기든지또는半身不隨허구부는中風等等。

이병의원인은 술·담배·림질·매독·변비·편식·신장병·당뇨병·위장병·결냉과로·초심·큰상처또는 난산·대환등으로, 혈액이혼탁되야순환이나부기때문에생긴다. 혈액을정화하면낫는다 결코불치의병이아닌것을알게되엿다. 파리잔는의학박사와함께고심연구한今津博士는 혈액정화의 광장한협액정화제를발견하엿다

이병으로고통밧는분은속히설용잇는大阪今津研究所에가 편지로용대를기록하야의 시든지、편지로용래를기록하야의뢰하시라! 박사의 연구와시험에 의하야、병근원과증상에적당한 혈액정화료법을 친절하게가르처드린다 동연구소를방문하야 난병자를보고 다수한연구와、전국각방면의 낫지못하든 난병자도 완치되야 감사에 ... 대복음이라고감격하엿다

カメラと材料

京城本町一丁目 岩瀨寫眞機店 電話本局七五五·振替七五五

流行歌 첫사랑의꿈 李弼植 玉某 作 콜럼비아레코－드

冒險病仙藥 神秘丹 大阪 本舖 景春堂

朝報案內

急告 拙者의象牙製角形實印을 昭和十一年七月九日紛失하엿기로 如是急告하오니 見失하신분은 連絡하여주시오 七月十七日 平壤府竹典里 金成浩

讓渡 店舖及物品一切讓渡코자하오니 希望하시는분은 來談하시오 京城鍾路一丁目六 愛壽堂藥局

山羊 瑞西直輸入純粹ザーネン種分讓 農會種苗場學校特別優待 京城東小門外 明本山羊牧場

肥滿劑 身體瘦瘠한데여러가지療養도無効하야困難하든분은「藥書」를申請하면 冒險身體를健全하하며害업시身體肥滿케하는良藥의說明書를進星 京城府新町七十一 小川藥院

朝鮮唯一 電醫養成

現代成功의秘業

最新最高電氣物理醫療師

○東京電醫學校創始學長責任指導

本院卒業生內鮮各地無試驗開業資格

夏期特別大講習生募集

朝鮮高等電醫講習院 京城府黃金町三ノ三四四

感謝廣告

本人의夫李龍凡이가生前에 ... 昭和十一年七月十七日 慶州邑北部里 孫貴蓮

ランランチック 란란칙구

이것임니다 日本에서第一最高級이라는것은 혼자서쓰기가 앗갑긔 꼭 달분에게勸告하고십흔 이지요

レコード 蓄音器 大阪市東區淸水谷西ノ町 小林蓄音器製作所 同業ニ限リ型錄四錢要 電話東五五四九

▲代理店特約店募集

時代는工業化하고企業은機械化하고 生活은複雜化하야需要供給의圓滿圓良을要할이時代的要求이라本社는 朝鮮金融組合聯合會指定農具配給元으로 今般朝鮮滿各地에代理店特約店을設置하고 金融組合指定農機는勿論其他各種의優良農機具의普及을圖하야新業의發達과農村의振興을期하고저 左記要領에依하야 代理店特約店을募集하오니 脫穀機·製繩機·叺織機·籾摺機·精米機·揚水機·石油發動機·噴霧器等의豫約販賣時期가切迫하오니至急應募하심을要望함

記

一、特約地區 一郡又는數郡

一、特約條件 現物取引販賣에關한詳細는面談又는書面으로問議하시오

一、應募期限 昭和十一年七月末日까지 面談은自七月二十五日至同月三十日로定함

型錄(目錄)希望者는申込次第送呈함

京城府蓬萊町一丁目二〇番地 朝鮮金融組合聯合會指定農機具配給元 株式會社 福岡產業商會 電話本局二四五〇番

浪花館 七月15日より12日7日迄 上映時間表 ▲總州俠客傳 一·〇〇 三·二〇 七·一五 ▲麗夜の女 二·〇〇 五·五〇 九·〇〇 入場料金 大十錢 四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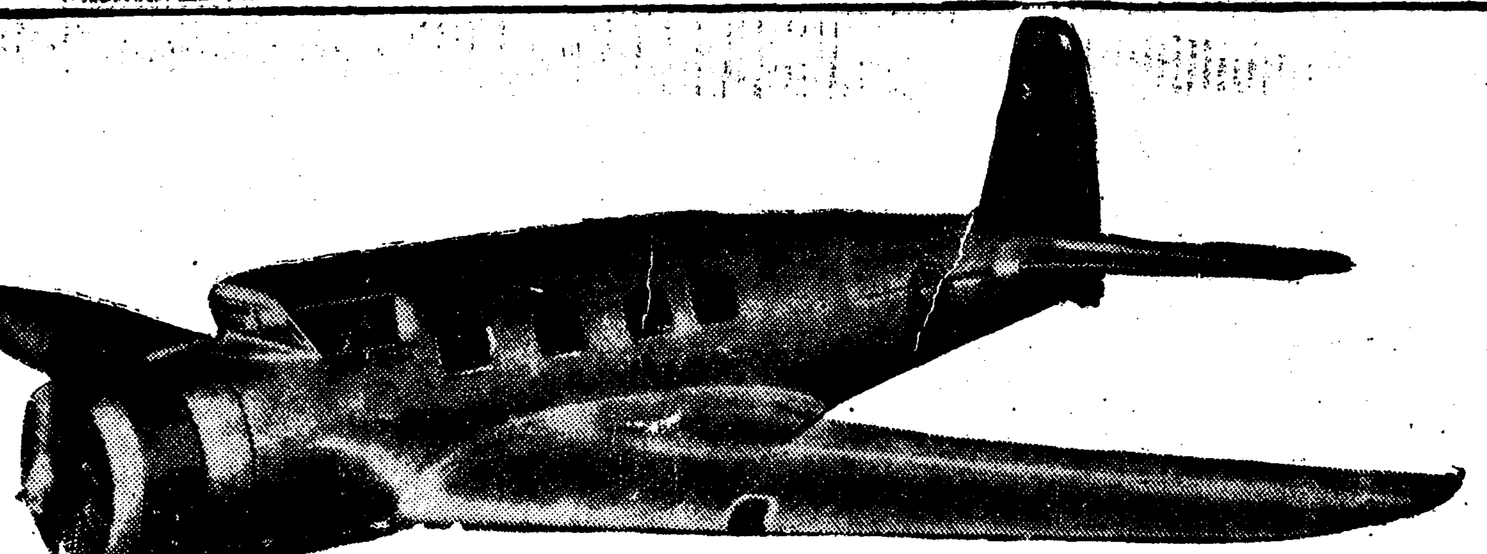
桃花劇場 麻浦桃花町 電話龍山三三番 西大活 部 無宿의 猿群 ◇米國宣傳비아社超特作 怪名 五百年後의地球 ◇두사마에스그래－루벨크提供 ... 케이리지 본드 氏 主演

京城撮影所特作品 朝鮮映畫 全發聲 洪吉童傳 監督·李明雨 錄音·李弼雨 主演·金顯雄 李鍾哲 金貞淑 七月十九日부터 晝夜四日間!! 料金 小人三十錢 大人…

若劇 P.C.L映畫と 高級洋畫 大人五〇 學生三〇 ▲透明光線 ▲舞臺に立つ妻 ▲ノンキの青春醉虎傳

優美館 黃金町 電話光三九五 七月二十日부터 ... 最後의駐屯兵 戀は海邊で 三千世界膝栗毛

# 악질을 전멸합시다



## 림질에대하야

**림질** 은 독일 나이세루박사가 발견한 고ㄴ곡갱이라는 림균으로 인하야 나는병인대 반다시 전염으로인하야 나는것이다 제일은 남녀의 관계로인하야 전염되고 그러치안코 변소나 목욕탕 또는 요강 이불가튼데서 병자의 고름이 묻어서 전염되기도한다 전염한지 이삼일 또는 일주일내에 발생하며 한달후에 발생하기도한다 증세는 년령체질에따라 다르나대개는 젊은이는 로인보다 증세가 심하고 급하다

◎**급성** 림질에도 두가지가잇스니 전부뇨도염(前部尿道炎)후부뇨도염(後部尿道炎)이다 ◎전부뇨도염은 전염된지 일주일이내에 오좀구멍이 부어 부르트는고로 몸시 신꼿치 따거웁고 오좀이 자조 마려웁고 방울방울 떠러지고 아프고 쓰리고 칼로 점이고 고초가루를 뿌린것갓고 그리하야 신꼿까지 부어서 열이나고 가래톳이스는일도잇다 몸이 피곤하고 음식맛이 젓치고 신경쇠약이되고 잠을못자고 아푸고 심하면 피고름이 나기도한다

◎**후부요도염**(後部尿道炎)은 一二三주일되도록 부주의하면 림균이 속으로 들어가서 오좀구멍이 전부 헐게되는것인대 오좀이 자조 마렵게되고 신이 끈허지는것가치 아푸고 심하면 오좀이 안나오는일도 잇고 심히 아푸며 홍문까지 빼치고 무지룩하며 신열이 삼십팔구도 나는일도 잇는데 대개는 불합리한약과 치료로 이중세로 변하는 일이만타 그럼으로 신에서고름이나고 아푸거든 한시각이라도 속히 약을 써야한다

◎**만성림질** 은 급성을 잘고치지아니하고 몃칠지나면 만성으로변하야 병세가 오래가고 별별식성으로변하는법이다 이중세에는 오좀이 혼탁하고 림사(淋絲)가잇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좀구멍에 고름이 말러붓고 짜면 고름이나고 심히 아푸지아니하나 고름이 독하야 눈에드러가면 눈이먼다 그리고 심히 아푸지아니하나 때때로 아푸고 가려웁고 근질근질하고 그리고 확끈확끈하고 찌뿌드드하고 오좀눌때는 오좀이 두갈내로 나오는일도 잇고 그리고 몃해후에 요도협착증(尿道狹搾症)이 되야 오좀통이 러지게되는일도잇다 림사(淋糸)는 곱부에 오좀을 밧어서보면 실가치 뜨기도하고 벌레가치 동글한것도잇다 곱부둘을가지 오좀을 밧어 처음 곱부에 림사가잇스면 전부(前)요도염이오나종 곱부에잇스면 후부요도염인대 후부요도염은 림균이 깁히드러간것이다

◎이러하신분은 구로벨을 쓰시오

### 특제 구로벨의 효능

남녀만성림질(男女慢性淋疾) 림독균대하증(淋毒菌起因帶下症)並製外、요도염(尿道炎) 고환염(睾丸炎)、방광염(膀胱炎)、섭호선염(攝護腺炎)、여자오좀소래(女子消渴)、관절염(關節炎)、자궁내막염(子宮內膜炎)……並製外、라팔관염(喇叭管炎)、란소염(卵巢炎)、림독성제증(其他淋毒菌起因諸症)

약갑 특제 구원・中형용오원・普성용삼원이오 오원이나 삼원이나 다일주일분이오 위장을상하지아니합니다 (제일큰백오양관)

發賣元 京城西大門人口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代表電話光③三三四番
振替京城四九五〇番

# 림질、대하증 냉병、명 약
# 구로벨

## 眞實한對話 (진실이약이)

客 림질에 조흔 약이 잇다지오
主 네 잇습니다 구로벨이라는 약일니다
客 잘듯습닛가
主 네 잘듯습니다 약을 쓰신 분들이 잘 증명하십니다
客 광고로도 잘보앗습니다만은 광고와갓치 약이 실상촛습닛가
主 물론입니다 광고도 한두번말이지오 약이 부실하고야 엇지광고를내겟습닛가 만일 약효가업고 광고만내면 처음에는 혹광고를보고 쓰게되나 그다음에는 그광고가 효과를 일케됩니다 암만하야도 약효가 조아야 그광고가 정말생명이 잇는 광고가 되는것입니다
客 참 그럿켓습니다 그러면 한제 수십시오
主 네 감사합니다
客 그런데 구로벨을 쓰면 위장은 안상합닛가
主 그런염녀는업습니다 약효가속하고 약기운이강하고도 위장은 상하지아니하는것이 구로벨의특장입니다
客 태중에 써도 촛습니까
主 그병이잇스면 수태도못하거니와 만일태중에 그병이잇스면 무죄한아해에게 병독이전염됩니다 이약을 써야합니다
客 그러면 한제 더수십시오 우리내외가 갓치 써야하겟습니다
主 그러십시오 이약을 잘쓰시고 그무서운 병을 속히 고치서서 건강한 행복을 누리십시오

# 大神聖堂의陣容

## 支社代理店特約店一覽

支社 全南光州府本町四丁目六 神崎神聖堂支社 宋淳燗
黃海道海州邑南京町一六〇 宋淳燗
京畿道水原郡 李光澤

### 市內代理店

京城南大門通二丁目 新井藥房
本町二丁目 北島藥房
本町四丁目 木村藥房
鍾路三丁目 第一藥房
仁寺町 富仁藥房
阿峴町 春山藥房
南大門通一丁目 富士屋藥房
黃金町四丁目 南海堂
鍾路二丁目 白陽堂

### 地方代理店

仁川府外里一九〇 仁川堂藥房
[illegible]

### 特約店

京畿道仁川府外里一二九 德仁百貨商會
[illegible]

## 支社設置引受決定

黃海海州地方 宋淳燗殿
京畿道水原 李光澤殿 決定外十數氏申込開業同時發表함

●各道●府廳●所在地●에서●支社經營●하실●有力한●新進●事業家●

大特典募集支社希望이라明記하시고規定書請求次第無料郵送함

京城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謹告

特約店以外에는 절대로 화러나루전이업습니다

# 家庭

## 땀내도 숭한데…… 옷에서는 풀냄새

### 여름옷은 이것이 큰탈이지요

### ……풀을 안상하게하는법

조선옷은 더구나 녀름옷은 반듯이 풀을 먹이어야만 합니다。그것이 멧백년동안 두고 두고 해나려온 우리들의 습관입니다。그러나 녀름에는 살내 땀내가 뒤석겨 풍기는데 옷에서 풀냄새까지 더움으로 피우지를 안습니까? 녀름의 풀은 쉬기가 십상팔구라 쾨쾨한 그 냄새가 임구로 난질이 아니겟습니까? 그 좋어떠캐든지 해서라도 풀쉰 냄새만은 제거하도록하여야 하겟습니다。남피의 교제도 교제려니와 제자신부터도 그다지 맛기 조흔것은 업는일입니다。무엇이나 생각을 하면 방법이 아조 업는법은업습니다。위선간단한 방법을이아래에 들어서 소개하겟습니다。

풀이 쉬는데는 두가지의경로가 잇습니다。첫재는 옷에 먹이기전에 이미 풀이 쉬어버린 것이요 둘재옷에 먹인뒤 거기서 고만 쉬게되는 것입니다。그런데 풀은 어느편이 만흐냐 하면 몬저ㅅ번의 편이 만흡니다 왜그러고 하니 이 더운녀름날 떠구나 부억가튼데서 자칫하다가는 풀은 쉬이기 쉬운 까닭입니다。또 옷을 먹이기전의 풀도 쉬는데도 두가지의 경로가 잇습니다 첫재는 풀쌀로 담거 노핫다가 고만 쉬어버리는것이요 둘재는 풀을 쑤어 노핫다가 쉬게 되는것입니다

본래 풀이쉬어 냄새가 나는것은 전분질(澱粉質) 담백질(蛋白質) 기타를 포함한 쌀이 썩어서 발효(醱酵)되는 바람에 락산 까쓰 메탄까쓰、류화수소(硫化水素)、암모니아、인돌、스카톨등을 발생(發生)시키는 것이랍니다。그러케 불유쾌한 것들을 내몸에걸친 옷으로 부터 발생시킨다는것을 생각한다면 냄새도 냄새려니와 재미 업는 것입니다。하여든 풀쌀이나 풀을 쉬지안케 하는 것이제일입니다。그 것이 풀쉰냄새를 안피우게 하는데잇서서 우월고누의 첫수마찬가지 일것합니다。

×

첫재는 풀쌀이나 풀이더운데 두지 말고 바람피잇고 시원한 곳에 담거 두어야 합니다 둘째는 풀쌀이나 풀이나 담거 노흔 물을 아츰저녁으로 자꾸 갈어 너허서 항상 깨끗하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三)그 두가지의 방법으로는 아모래도 불안전하니까 풀을만히 쑤거나 또 오래두게 될때는 사리지루산마이른 방부제(防腐劑)를 넛는수밧게 업습니다。물한말에 사리지루산을 귀개로하나쯤 가득 부어서 꼭 알맛추만큼 두서너되쯤 되는 물에는 아조 조곰으로 죽합니다。그런데 그것을 너흐으도 주지 못합니다。물론 풀이나 풀은 새모이 사람도 입에 대하지 안토록 주의함이 좃습니다。

×

그러나 옷에다가 섞한 풀을 먹이어 노코도 진시말리지 안하서는 옷후에서다시 풀이 쉬는 수가 잇습니다。그러니까 풀흔 먹이는대로 즉시즉시 해스볏에 널어 말려야만 되는 것입니다。푸지한 옷을 말에말린다는것은 물론이요 다림차비로물을 뿜어서 쌓가지고 얼는 안 다리는 것도 아조 재미가 업습니다。그저 해볏을 보아 가면서풀을 먹이어서는 얼는 말리고 또 얼는 다리어 버릴 것입니다

## 양장의몸맵시는 거름거리하나

요새보면양장하신분 이점잘님께 어제다르고 오늘다른것갓습니다 그리고 양복선택도 적당하게 입어모양도나고 몸맵시도 세련되보이지만 그래나 아직은 저 사람네를 도저히 따를수업습니다

첫재 체격이조코 언짠은 것은 별문제로하고 풀음을린는 즉똑바른의미에 대해서 평무관심한것이 드러납니다 양장이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신체의 선이 두려시 드러나는것이라 맵시가 조코납분것이 훤히드러납니다 그다음에는 거름거리인데 양장에는 양장에 어울리는거름거리가따로잇서야할것입니다 조선옷으로 긔차마를 입고 다님처모양으로갈지(之)짜거름을 것는다거나 유유하게 여덟팔(八)짜거름을것는대서야 누가보든지 상밥로 비우가역할것입니다 그럼으로 양장을 하시려든 즉 똑바른거름거리、허리를 펴고 가슴을 내밀고 궁둥이를 어무리고 무릅을쪽빼고 일직선(一直線)으로것는것처럼 거러야 합니다 그려타고 위나무다리를 건너가드시 어정어정해도 못쓰고、너무 활발스럽게 병정들 아프로갓! 하듯해도못씀니다。그저 수수하게 점잔캐 명량한기분으로、가벼운발거름을 떼어노흐시면될니다。엇잿든 거름거리는일마동안주의해서 배우면되고 고치면되는것입니다。

그리고양장하시고협드면『 』이나 『파라솔』을 드실때는 좀노피드십시요 그래야 몸이시신해보입니다 특히『파라솔』은 갓뜩이나 긴것인데 이것을 느러트리고 휘처으면서 길을거르시면 무엇이 달린것가태 참보기숭합니다 반드시 몸에부칩하

## 미개인의점쟁이

미개한 백성일수록 미신에 대하야 몹시 집착심을 가지고잇는것은 세계공통의사실입니다 그것의 가장심한 례는 남아푸리카 에 사는 『쯔-르』족속인데 그들은주문 마법의사 점쟁이는 모두가 악귀의령을 쫏고 인간의 미래를 다알수 잇고 또한 운명까지 좌우할수잇는것이라해서 여간 숭배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사진은 점쟁이(오른쪽)와 점을치려온 전사(戰士)

○○ 한대 피고 가자! ○○

## 산고양이재판

李 桐 鎬

어느 기픈 산속에 큰 느티나무가 홀이 나란이 서잇섯습니다.

그 느티나무 우에는 까마귀가 한마리 살고 그건너편 나무에는 산새가 살고 잇섯습니다。까마귀와 산새는 엇지나 정다웁든지 저녁만먹으면 가티 놀고 하로도 떠려지지 아니하얏습니다。

어느날 이엿습니다。산새는 먹을것을 어드려 아침 일즉히일어나서 들로 나려 갓습니다그러나 밤이되도록 도로 오지아니하얏습니다。

까마귀는 대단히 궁금하기에 여 산새가 돌아올때만 고대하고 잇섯습니다。

「아! 오날은 대단히 느지네…무엇 함에 잡히지나아핫나?」 하고 차츰차츰 걱거리로 나려갓습니다。

그러나산새는 돌아오지아니하얏습니다。산새는 집을나간지 사흘이지나도 나흘이지나도 아무 소식이 업섯습니다。까마귀는 대단히섭섭하게 홀로 지내고 잇섯습니다。

그런데 산새집에는 보지도 못하든 톡기 한마리가 찾어와서 들어가고잇섯습니다。

까마귀는 이상히 생각 하고 그곳을가서 기웃하고들여다보앗드니 톡기 는 들-들 코를 골며 잠을 자고잇섯습니다

까마귀는 생각하기를 「새가 여지것 돌아오지안는것을보아 죽은것이다」 하고 구지토끼를쫏지아니하얏습니다。그랫드니 닷새되든날 그 산새는 집을차저 도라왓습니다 다른때가티 들어가랴하얏스나 보지도못하든 톡기가잇슴으로 새는 놀이나서 째근대면서

「여기는 내집이니 어서저리 나가거라」

하고 말하매 톡끼는 눈을 찌프리며

「아니! 이것은 우리집야」

「무엇이 엇재?」

「내집이라니까」

하고 이러케말다툼을 하게되엿습니다

그때말다툼을 멀리서듯고잇든산고양이는 「잠깐운다 잠깐잇」 하면서 혼자기뻐 하얏습니다。

새와 톡기는 얼마를 잣우다가 새가 하는말이

「에 우리가 자웅짓지 어시근 방노구에게 물어보자」

「그것 조흔말이다」

톡기와새는 들로나려갓습니다。

고양이는 벌뜰 먼저 나려가서 길거리에서서 기다리고잇섯습니다。톡기가 고양이를보고

「저기 고양이가잇다 우리고양이 한테 무러보자」

까마귀는 겁이나서 뒤를 따러 왓습니다。톡기는 고양이를보고

「여보시오 고양님 우리들은 자웅을 하다가 끄치안나서왓스니 재판을 좀 해주십시요」

하고 고양이에게 말하얏습니다 그말을 들은 고양이는

「응! 무슨일이야」

하고 양한 얼굴을 해가지고 대답하엿습니다。

톡기와새는 자세히 이야기하니까 고양이는

「나는 귀가 먹먹하야서 먼첫 소리는 들을수 업스니 이리 좀와서 하구려」

새는 벌서 어리제우고 톡기보고

「고양이는 우리들을 잡어먹어먹으니까 여기서 말하도록하자」

하고 고양이에 가는것을 말렷습니다

「그럼되가 왜야!」

하고 톡기는 악지를 세웟습니 새는 톡기악지를 못이기여서 고양이에게 갓가히 가니 고양이는 냉큼 달려들어 두발로 하나씩 잡아먹고말엇습니다

그모양을본 까마귀는 생각햇습니다

「솔데업는데 고집을 세우다가 저런일이 낫구나」

까마귀는 울면서 집으로 도라갓습니다。

## 너무 살찐사람 너무 마른사람 수영은금물

의사아닌 보통사람보기에도밧작말라 몸이무척약할듯한 사람은 의학적으로보아 흉부나호흡기가납분사람 즉 폐첨카타-르나폐문림파선염에걸린 말하자면 폐결핵이사람이만습니다 그리고 륵막염을알른사람에게도 이런체질이잇는데 이런사람들은 현재에알코잇지아니하드래도 과로또는 과격한운동으로인하야 발병할가능성이만습니다 여름휴가동안에바다에나가 수영을하고나서 병을어오는사람이만코 그시에병이아니낫드라도 나중에발병하는수가만습니다 원체결핵이란병은 과로와과격한것을꺼리는병인데 해변에나가면 자연자미잇는일이 만흔만큼 자신도모르게 과로하게되고 과격한운동을하게되는수가만흠으로 이점을주의해야합니다

◇

살이밧작마른사람과반대로 살이 퉁퉁히찐사람이나 수족이푸석푸석하게부은사람은 심장에병이업는경우라할지라도 심장의힘이 부족될우려가잇스며 특히수족이부은사람은 심장이납부거나 신장염또는 각기에걸린중세 이므로 수영은물론엄금입니다 신장염이란병은 차다거나 습기가잇다거나 칩다거나하는것을 꺼리는병입니다

살찐사람이 수영하다가 심장마비를이르켜다거나 또는 심장병이잇는줄을 모르고 물에드러갓다가 심장마비되례가 퍽만습니다 더욱이 심장의변막병(瓣膜病)가른것은 그사람이평소에 모르고지내는것이니까 한창더 위험한것입니다 그리고 각기중에도 충심성각기(衝心性脚氣)가 잇는사람은 물에드러갓다 나오는것쯤은 괜찬호나 수영은대금물입니다

◇

그다음에는 수족이나 허리가 아픈사람 관절에병이 부자유한사람으로『류마티스』에 걸린사람이 만습니다『류마티스』는 특히 물을꺼리는 병인데 조곰만 습기가 강해도 벌서 반응이생깁니다 해안의 공기란 습기를 끼기쉬움으로 이점으로보드래도수영은 자미업습니다 그리고 결핵성 관절염이라든지 기타의관절염도 하여서는 그것이벌서위험입니다 [illegible] 병도 악화되기쉽습니다 따라서 수영장에 가고자할진대 의사의 진단을바더야할것과 특히『렌트겐』사진을찍어폐 신장 신장에 고장이잇고업는것을 판단한뒤가아니면 물에가지 말입니다 결핵과 신장병은 환자자신은 물론 의사도 여간진찰을 면밀히 하기전에는 알기 어려운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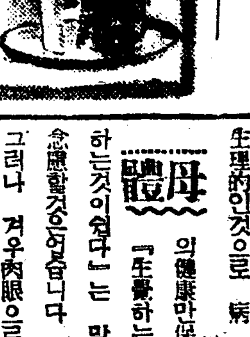
## 우리차지

모처럼 오섯는데 뭘대접할까。

여기는 촌이라 소고기 생선은 장날 아니면 업서요。

그대신 감자 옥수수쩌드릴께 실컷 잡수시고 참외 수박도 잡수세요。올치 복숭아도 따드려야 하겟군。

(글쓴사람 최연희)



## 가정의학

### 가래가심하오

問 금년이십오세남자인대 수년전부터 가래가 심하더니 지금은 더욱만히 나오며 가래는 『가다구리』이컨가리 말갓말갓하며 점은점이 석겨잇습니다 페결핵이나 아닌지요 특별히아픈곳은업삽고 십여년내로 감긔는 자주걸리게 되옵니다 양복직공인대 가정료법을 하교하야주시고 약명과섭생법을 가라처주시압소서 (平北生)

答 가래가심하고 감긔에자조걸린다하니 아마폐가 건강치안흔것갓습니다 한번진찰하는것이 안전할것입니다 보통으로가정에서주의할것은 과로치말게할것이니피곤한감이잇거든 곳안정하게할것이고 감기에 걸니거든 곳치료를밧게하시요 또는강장제로『강유』나『네오톤』『몰톤엑쓰』등을복용하여 몸을튼튼케하시고 취침시간을 일정케하여 피로가업게하고 잠을잘자게할것입니다 (聖母病院長 朴東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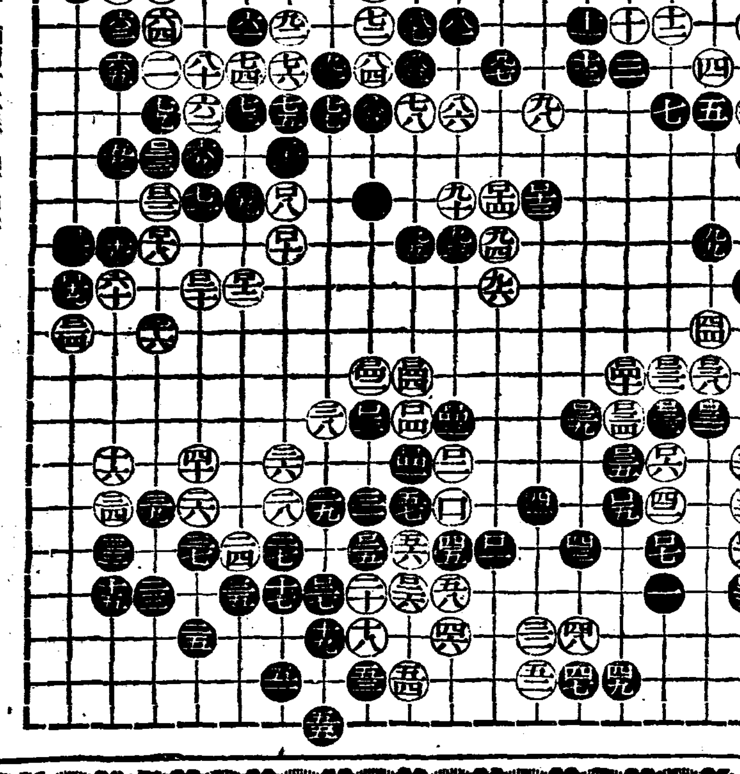
## 圍碁對局譜 =9=

本社主催

白 丁奎春

黑先 權秉郁

●一二九 乙의十六
○一三〇 乙의十四
●一三一 丙의十二
○一三二 丁의十一
●一三三 丁의十二
○一三四 戊의十二
●一三五 戊의十三
○一三六 乙의十三
●一三七 乙의九
○一三八 丙의十一
●一三九 己의十二
○一四〇 戊의十一
●一四一 癸의十三
○一四二 子의十一
●一四三 壬의十二
○一四四 癸의十一



**蔡極文氏評日** 黑이 丙의十二로 突入한것은 未詳한일이다 不見其益이면 反被其害가 아닌가 黑이 癸의十三으로 粘着하야 壬의 十三四白二點을呑取함은 果然絶妙하다 요다음 缺陷裝飾이 不無要處하니 [illegible] 跛足而待하노라

# 家庭醫學

## 初産婦人에게!

### 母體를健康히하야 健康한幼兒를出生함에는

初産하는婦人은이것을 大厄이나 무엇가티念慮하지만姙娠과解産은 生理的인것으로 病 아니므로 念慮할것은업습니다

**母體** 의健康만保全되면所謂 『生覺하는것보다解産 하는것이쉽다』는 말과가티 그런 念慮할것은업습니다

그러나 겨우肉眼으로볼수잇는程度의卵子가受胎하면 겨우平均二百八十日間에 身長約五十糎、體重約三千瓦의胎兒로 發育하므로 姙婦의負擔이큰것은 말할것도업고 結局安産과難産의 區別은此等負擔을補充하야 健康한母體를 만드는姙娠中의 攝生如何에依한 것입니다 먼저姙娠하야大部分이 煩悶하는것은입덧입니다 이것은 大槪初姙婦에게 激烈한症狀을나타내는것으로 恒常吐氣가잇서서 飮食을먹을수가업서서 全身이衰弱하여집니다 그때문에 母體에여러가지惡影響을미치지만 이러한症狀이一個月以上繼續하면 胎兒가死亡하야流産하는일이잇스므로 速히治療지 안허서는아니됩니다 또姙娠後半期부터 分娩時까지일기쉬운病에는 腎臟炎이잇습니다 腎臟炎에걸리면

**浮腫** 이생겨서 蛋白尿가나와서 煩悶할뿐만아니라分娩前後에突然意識을일코痙攣을이르키어母子共히죽는子癎이라는病이되기쉽습니다 다음에心臟病結核等의病이잇는사람은姙娠하면症狀이 突然增惡하기쉬우므로 이것은母體의榮養이胎兒에게 關係되여서榮養不良이되여新陳代謝가障害되므로平生虛弱한 사람이라도同樣의理由로脚氣等에걸려流産을惹起하는일이흔히잇습니다

그럼으로姙娠中은身體의榮養增進에努力하고胃腸과腎臟을健全히하야便通

**利尿** 를잘整齊하야 浮腫이 잇스면그것을 除하지 안어서는 아니되나니다만은 거게 對하여서는 一一히 여러가지藥을이것저것쓰는것보다도한藥으로 그것들의 障害를막을수잇습니다

그것은『錠劑わかもと』라고하는活性헤-웨菌劑로姙娠에게가장必要하여서이것이 缺乏하면 脚氣가 생기고 입덧이增惡하는 비타민B를 비롯하야各種의 貴重榮養素 及胃腸과腎臟의 機能을强하게하야新陳代謝를活潑히하는等의 作用이잇는十數種의活性榮養素가豊富히包含되여잇습니다 그래서姙娠初期부터『錠劑わかもと』를愛用하면 飮食物이잘消化되고 一方榮養素가 補給되여서 全身의榮養이 充實하여지므로 脚氣를防止하며 胃腸과腎臟이健全하여저서 便通利尿가 整齊되는것도當然한일로서 더욱이 食慾을增進식히는이유로姙娠의物質과胎兒發育에必要한 無機榮養素等도綜合的으로 包含되여잇스므로 母體뿐만아니라 胎兒發育에도 好影響을齎來하야 健康한幼兒를 安産할수가잇습니다

## 神經質인小兒의育兒法

身體가虛弱하야 食慾이 적드며가리거나 밤에울며보채는 少少한일에도 놀래서성이잘나는小兒를 神經質의 小兒라고부르고잇지만이때에小兒를健康하게기를라면 해면以外에 日光을가까히하며 體質을充分히하게할것은勿論 營養을十分히하야 體質그것을强化치안허서는아니됩니다。

『錠劑わかもと』는 胃腸을强健하게하야消化、食慾、便通을順하게하는諸榮養素를豊富하게 비타민、神經을發成하는鈣와 燐質이 多量으로包含되여잇스므로小兒의身體를 强하게하고神經을安定하기爲하야는 適切한藥입니다

## 日常食物로 母乳의良否가支配된다

十三世紀頃의靑兒風俗

(當時는그림과가튼보자기로 初生兒의成育을돕는다고미덧다)

**發育과體育上** 世界에서 乳兒死亡率이가장적다는뉴-지란드에서는 二、三十年前부터 母乳榮養運動이 熱心히 繼續되여 그結果乳兒死亡率이激減하엿다고하지만 事實母乳榮養兒와 人工榮養兒와의 사이에는 큰差異를내는것은 當然으로서乳兒를健全하게 기를뿐만아니라어머니의젓은 참으로無二의食物입니다 그러나어머니의젓이 無條件으로조흔것이아니라 母親의健康 榮養狀態如何에依하야 幼兒가健康하게도되고 反對로弱하게도됩니다 말하자면生後二個月頃부터 一年까지새에만흔 乳兒脚氣等은 確實히母乳缺陷에서오므로 以前은이것을 人乳中毒症이라고해서 母乳中에不良한成分이含有되여잇슴으로 이러나는것이라고햇스나 最近의硏究가進步한結果 不良成分이 含有되여잇는것이아니라 必要한成分이 不足한까닭이라는것을알고 母親의飮食物中에 그成分을補充하면 豫防할수잇다는것을 알엇습니다 乳兒가順調로成長發育하라면大人과는 또特別한榮養分이 만히必要하므로 말하자면 리진 히스치진 과가튼아미노酸 구리고-겐 갈시움 비타민B와가튼것으로 이러한모-든것은

**母親의食物** 로부터母乳가되여 乳兒에게給與치안허서는아니됩니다 結局母親의食物이母乳의 良否를支配하고 따라서乳兒의 健康까지도支配합니다 그러나母親도그러한 成分을豊富히包含한食物의 攝取은困難하고자칫하면 不足하기쉬운것은不可避한事實로서 特히비타민의不足은가장普遍的으로 發育不良兒 乳兒脚氣等도 비타민不足에基한境遇가만흔것은 最近學者이 證明하는바입니다 그래서그 缺點을補充하는方法으로 最近一般家庭에普及되여잇는 方法은活性헤-웨菌劑『錠劑わかもと』를榮養補給劑로서 常用하는것입니다

**機能을活潑하게** 이헤-웨菌은 榮養의寶庫라고할수잇는一種의 微生物로小兒의成長發育에必要한아미노酸구리코-겐、칼시움、等은勿論비타민B의 含有量에잇서서特히優秀합니다其他酵素라고해서 腸內의 [illegible] 하고胃腸의榮養能力을高進식히는 成分도豊富하므로藥飾한 榮養劑가 到底히 追及할수업는 効果가잇습니다 오직製劑方法이 困難하기때문에 從來는 [illegible] 엿스나 我國에서 곳이것을苦心硏究한結果 特許工程에依하야全成分을 破壞하지안케 製劑한것이有名한『錠劑わかもと』입니다 이『錠劑わかもと』는東京芝公園大門內際わかもと本舖榮養と育兒の會(振替東京一七〇〇番)에서 三百錠入千錠入의 二種이 一日分겨우 五、六錢(小兒에게는 二三錢)의 廉價로 發賣되여잇습니다、

## 입덧도곳낫고 健康한애를安産

(福島) 松山雪子

(前略)저는妊娠가 실허서하나도먹어보지업엇습니다 그래서 三年이 돼도姙娠치안는다고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렷습니다 姙娠하여도 胎兒가크지안는다고해서念慮하엿습니다(中略) 新聞에서『錠劑わかもと』가조타는말을듯고 服用하기始作하엿습니다 그래서 意外에 四年째되는해에姙娠을하야 그기뿜은 붓으로다記錄할수가업습니다 그래서여러사람이『わかもと의애』라고불르고잇습니다三個月째에입덧이나서 밥을먹을라면 냄새가나고一時가슴이메히는듯이 吐氣가잇섯습니다그때에곳다시『錠劑わかもと』를 먹으면 밥을먹을수가잇섯습니다 그래서 健康한乳兒를 나을수가잇섯습니다 出生以後에도잘자라고살이쪄서 여러사람이칭찬해서 밥을만히먹습니다 滿一個年이 되여지만 感氣는잘리지안코 무엇을먹이든지 胃腸이傷하는일이업습니다 이모든것이『錠劑わかもと』의德澤으로생각하고感謝하고잇습니다

**掛圖寄贈引換券을 活用하여 주십서요**

「わかもと」二錠마다 『掛圖寄贈引換券』이부러잇스므로求하시는동안에는能力의需要로一枚라도어시면 하지말고小學校에寄附하여주십시요 그引換券을基하야小學校에 對하야掛圖를寄贈합니다。

詳細는東京芝公園十一號地敎育資料會에 照會하십시요

# 學藝

## 文壇雜感 (二) 倦怠에지친近來評壇

朴英熙

그런데 問題는 林이나 韓의 論文에서보면 「現實的」「社會的」이라는 아조曖昧한 形容詞우에 「唯物論的」이라는 說明을 加해서 이것으로 試金石을 삼는모양이나 이에 關해서는 나의「叡智的活動의價値問題」이란 拙文에 몇가지 말한바잇스니 再論을 避하거니와

……現……實的이니社會的이니 하는것을 明確히하는데 무모 眞實하게 생각하는것이며 누구의 어떠한作品이 무슨理由로 非現實的이며 非社會的이라는지는 모르겟스나 가령 내가본바를말하면 『알리떼세푸』의『짜닌』에도 現實性 社會性이 充分이 잇고『톨키』의『어머니』에도 그러하나 다만 다른것은 作家의 어떠한 理想의王國으로 몰아 집어 넣는 進步力이 相異할뿐이다. 同一한 現實이로되 체호푸가려 不可抗力下에서 시드러가는 生命의 不滅한 哀愁를 그대로 描出한사람도잇고 「떠스토이에프스키」와 가티 그러한現實에서 自己의 理想으로 歸結하려는사람도잇다. 그러라고 우리가 文學史的으로評價할때 『체호푸』를 或은『알리떼세푸』를 無價値한 人物이라고 말할수잇슬것이랴!

問題는 林君도 韓君도 白君도 다 各各 自己所信대로

……作……品을 써보기 시작할것이다. 出發은 가티하고 勝利는 後日에 차질것이다.

그러치만 사람마다 가지고 잇는 獨特한 自己의 나가는길이 한데 合해질때 即 한덩어리가 되여서 具體的으로 社會及 民族文化의 量과 質의 體系를形成할수잇다는것이 勿論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個人의 自己完成과가티 어려운 일이다.

나는 때때로 「헤-겔」의 哲學이 哲學의 最高位를 占領한듯이 생각되나 이것은 實로 哲學이 結作되지 二十餘年의 長久한 眞理의 探求이음을 말하지 안는가?

일즉이 「힙포크라테스」의 金言인 「人生은 짧고 藝術은 길다」라는 말이 옛말이면서도 늘 새로운 啓示가 잇는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否……

새것을 建設하려고 옛것을 否認한다든지 自己의 것을 完成하기 위해서 남을 걱구러트리게다는 생각이 이미 妄想에 不過하거니와 近間에 보면 文化의 遺産을 새삼스럽게 부르지젓스나 무엇하나 正當히 그巨大한 遺産을 攝取한것이 업다.

무엇이고 基本學問을 修養함이업시는 自己學問의建設이 不可能하거니와 基本學問을 全然 無視하고 自己를 스스로 文化運動의 最高峰을 밟은듯이 생각하는것은 더욱 無權威한 朝鮮文壇의 奇怪한 現實이 아니고 무엇이랴!

이러한 氣分이 近日에도 오히려 文壇에 橫溢하고 잇다.

그런데 이러한 氣分을 더 細密하게 分析하면 그곳에는 『헤게모니』의 戰取라는 俗惡한 趣味가 潛在한까닭이다. 이것은勿論 左翼運動이나 或은 政治家들의 氣質이 文學圈內에 闖入된 緣由러니와

……哲……學이나 文學이라는 것은 그러한 世俗的 野望과는 相異하여서 어떠한 人生觀 어떠한 社會觀이든지 實力의 有無로서 그功績이 決定되는것이다. 文學은 運動競技나 雄辯大會가 아니니 조흔 『컨디숀』의 一時的勝利의 앗집한 快感만으로 最高의 功績을 일삼는것은 아니다. 文學은 鐵과가티 무겁게 作家의 努力의 結晶으로 한번功績을 是認하게 되면 이것은 적어도 永決的으로 久遠한 榮光을 비치는 巨大한 名譽로서 表現될것이다.

이러함으로 近間의 그러한 攻勢의 作家들을 보면 執筆만은 彼等의 自由러니와 文學을 各自로 成就하려면 그러한 無謀한 態度는 집웃 삼가는것이 조흘듯하다.

精神現象을 이야기 하면 곳 神秘主義라고 攻擊하고 唯物論的 用語를 使用치안흐면 곳無 있다.

……理……論도 한層一하지안라고 걱정을하며 藝術評論이 되도록 高踏的은 그야말로 無功의勞일것이니 心中을 合에裏論한것이다. 左翼評論家 相方面에도 때로는 眞理한 論調가 結作되다. 이곳에도 個人的感想이 잇는모양이든 알때 全然히 相關한 理想을 가진사람에게 오는 攻擊은 오히려 當然하다고생각한때도 잇섯다.

한사람의 相對者를 反駁하고도 그들은言必稱 歷史的任務云云함을 드는때가 더러잇는데凡俗하게생각하면 사람의 一擧一動이 歷史的 아닌것이 업스나그것은 彼此 實現한 歷史家의 任이 俗된것을 잘러버리는 導史刀가 되지도 안흘수업는일이니 다만 그의 藝術을 기다릴것이다.

文學을 創造하라! 作品을 쓰라! 爭論은 論爭보다는 文學의 本道를 거러가는것이 맛당한 일이다. 寡聞된 作品을 한篇 完成하는데는 非常한 努力이 必要하다. 先輩文豪들도 한篇의 作品을 위해서 二年으로 부터 三年 十年 或은 五六十年동안을 努力하엿든것이다. 이러한意味로본다면 文學의 修道의길이얼마나 遼遠한것을 알수잇다. (계속)

## 存在의辯護 ④ ―人間과그自己限定에關하야―

金基錫

時間을버서나서 時間밧게서 어옥지이는世界를 바라보고잇는것은 存在하는것은아니다.

얼마나마놀것들이 부단히 진실로부단히 나타나고사러지고할을보라. 아하 巨大한 流動의世界 볼모습을 오래지니는 산이 잇고 가을풀비슷 길이남기는바다가잇는가. 흙한덩이 풀한포기를 정성스럽게드려다보라. 그것이 어제보든대로 조금전에보든대로 잇는일이잇는가. 아니바로지금 눈한번깜작하기전에 보든대로 잇는일이잇는가 멋업는 流動 한업는變遷을보면서人間은 엇더케도야서 자기를 久遠한存在로보는 놀납고한迷妄에빠젓슬가. 人間을 길이흐를리지안는것으로보려면 먼저 人間을存在가 아니라고 宣言하라. 人間이存在가아니라고 옥임때 내가잇고 그대가잇는 이基本事實은 엇더케 될것인가.

時間에잇서서 주어지는것이아닌것이 잇기는잇다. 오늘의哲學에서 만히論議되는 無가튼것이 그런것이아닐가. 無는 存在는아니다. 無는 存在의뒤에서 부단히 存在를찻는것이다. 無는存在가 그것에서나와 그것에도라가는 어떤久遠한背景가튼것이아닐가. 存在가 등을 無에향하고섯다고 보아서조흔것이다. 無가時間속에 잇는지 時間이無속에잇는지는모르나 無는 분명히 時間에잇서서 주어지는存在가튼것은아니라고 보여진다.

時間은 無는아니다. 時間은무론 그자신存在도아니다. 無가아니면서 存在가아닌것이 잇슬것인가. 時間은 말하자면 存在의 形式이다. 모든存在가 그속에서 흐르는말하자면 『存在의바다』가튼것이다.

우리들은 모든存在가 時間에 잇서서 부단히옴직인다고 생각할수는잇다. 그러나 時間그자신이 엇던存在이면서 부단히옴직인다고 생각할수는업는것이다.

곰이나풀을 同一한秩序에 차히는것으로 생각할수는잇슬것이나 흙과時間 또는 흙과時間을 同一한秩序에 차히는것으로 생각할길이잇슬가.

우리들은 存在가 모도 時間에잇서서 주어짐을보앗고 時間에잇서서주어지는存在가아닌것으로서 無나時間가튼것을 생각해보앗다. 人間을久遠한것이라고하랑. 그러케보려는한에서 우리들은 人間을 無나또는 時間으로 보는것밧게 다른길이업는것이다. 비겨 人間을無라고念하랑. 人間을 時間이라고念하랑.

그러나 우리들의 貴한 迷妄의 이見解을 부단히 迷妄인것으로 가르치에어디케하라. 人間을 로보는 바른立場에 도라가면서 人間을 엇던久遠한것으로보려는 이迷妄을버서나기로하자.

지금의마흔사람들은 久遠한것을 찻는다. 時間에붓자피지아니하고 時間속에서흐를리지안는 엇던久遠한것을찻는다. 그러나 時間에잇서서주어지는 存在의世界라것속에잇서서 도대처 이久遠한것이잇슬것인가. 사람들은 여름에 그러케도 옥어젓던니피하나를 돌아시떠러지는것을 보면서 엇던 하염업는생각이 들엇던것이다. 사람들은 언덕우에그러케도 밀어올렷던돌이 어느사이에떠러서 겸으두리 드러나는것을보면서 엇던 하염업는생각이 들에게 이流動의世界 그리하야 그 界가 크게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들은 끗업는失望 追憶 詠歎에잠겻던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떠러지는 닙 떨리는꼿에서받밧고이는事實을 외어야할것이아닌가. 運動과時間 옴직이는일、흐르는일、밧고이는일、우리들은 이것을 좀더 기피反省해야할것이아닐가. 人間은 탄식해서는안된다. 久遠한생 久遠한바다. 久遠한봄 久遠한 가을. 모도가 지금 바로 이瞬間에 모든모습 모든빗 모든소리를 그대로 久遠히 진실로 久遠히 남기게되다고하라. 이運動업는 이生成업는 世界를 우리들은, 나아가 마슬것인가.

## 一隨筆一 여름風景 (4)

蔡萬植

◇압꼿피는저녁

내가 낫코 자라고 한 집 베가 지고 버후가 된듯이를 레가니 기다려든드끼 색동라라의 바꼿들이 한거번에 활짝피인다

펑뚱한 잘뚝대에서는 조고맛씩하게 봉숭아들이 따레서 피인다

사흘바람이 자리안나게 지나가다가 이슬어린 거미줄을 건드린다

어스름은 지러간다 그럴수록 박꼿은 더 히게 더 온는하게 다

어둠속에서 우놋이 매흥는다 박꼿은 제굴 아름다운꼿은 아니다 그러나 처시악시가터 부끄림을 타는꼿치다

×

옛날 宮에서 王妃를 擇擇하는데 여러閨秀를 모아노코 무슨꼿치 第一조흐냐는 매스트를 햇는데 그中 버꼿과 木花꼿치 第一조소――한이가 뭣히이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아는것이지만 眞一 내가 그간擇의任을 맛튼사람이라면 그런沒情한이를 王妃로 뽑지는 아니햇슬것이다

꼿은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여서 조흔것이지 그놈이 인제 어떠한 열매를 매즈리라는 打算에서 아름다운것이아니다

그러니까 「버꼿과 木花꼿치 第一조소」 하고 대답한이는 좀칙한 사람은 될지언정 詩人으로 貴婦人이 될수업는 사람이다

박꼿치 조타는것은 어게보면 그러한意味로 칭찬도하는 사람

박꼿은 그래서 다 피여 조라는것이다 적당하는것은 누가 보는지 모르나 여름夕陽에 핀 박꼿을 보고 시를 어여하지 아니한은 아니할것이다

×

더위에 저녁안개가 소리업시 내려안는다 벌서 옷수수가 수 가을이 시들고 마을이 고요하고 ...

가을풍경을 기다려는다고 더 다 바레는 잘붙우에는 주이는 불

나비도 물레에서 하동한 저 나가는 작게레를 별러 고요를 모기불을 피우다

모기불 이 사방에서 연기하고 매키-한 연기가 물커물커 피어 베지어모는것이 저기-기며 방속에서 올려나오는것가터 벌게를

남은 하루 어둠이라 갈구리진 別담이 물릇으로 넘어가려고한다 바다물이 조바늘을 옷어진 을 라기에서 하나 도하나 그리

고 쫓을 넘어며 밧작인다 문한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약이 소리가 도란도란 들리다마다 밧은 축축하니 조용하다

박꼿은 어둠속에서 하다 박 쩍이 날어와서 날개를 친다

밤에 피는꼿에는 밤에 차저 오는 나비가 잇는것이다

마당에서 멍석우에 도자리를 펴노코 별레를 데리기가 하참이다

멀리 원두막에서 풀소리가 진하다 이야다 들려온다

×

故鄕의 그럿 田家기는 옛적이 시방은 마당도 업서지고 더럿도 업서지고 정은 形態만 남어 겨우 쓰러지지 아니하고 잇다고한다

그러나 어느구석에서 이때쯤 해가 저물면 박꼿은 우렷이 피고잇스리라

## 異國情趣 (一) 於哈爾濱

宋政勳

### 市街

帝政露西亞의 野望은 四十年前의 一寒村을 北滿洲의中心地로서 오날의 哈爾濱의 偉容을세웟다. 計畫途中에 革命이 이러나 거긔에다 滿洲國의建立으로서 이제는 日滿蘇三國을 싸돌고 政治 經濟的으로 重要의地點이 되엿다.

異國的한지운나라 情緒의 情趣이라그림지 靜乱 秋絵 크렘 色等의 香氣를 떠치는 로서아人의 諸建物 最近 新式建築을 融合하야 特別市劃가 되며 人口 近五十萬 工業이 盛하고 그 中心街는 기다이스카야街이다.

## 紅塵속에서

崔鉉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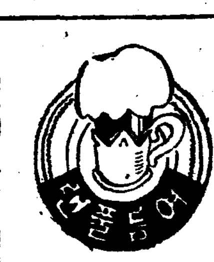
여름에 가고 시픈 데는만치마는 갈 形便이 되지못합니다

서울에 잇서서 昨年부터해오든 저의 主業(우리말본)의 印刷 校正을 하게습니다.

山海로 遊覽가는것은 八字 좋은사람 일인는 사람의하는 일이니까 그것은 어림도업는 불法이라 할수는 업겟습니다 저는 서울서 紅塵 속에살면서 하는 避暑法을 蘭談하게 습하겟습니다.

첫재 아침에 寢床에서 일어나자 冷水로 온몸을 씻을것이니 그리하면 半日의 業務에 能率增進味를 어들것이요

다음에 午後 夕陽에는 일부러 肉體勞働을 한든지 登山을하여서 땀을 흘린 뒤에 다시 冷水로써 온몸을 씻을것이니 이리하면 心身의 爽快와 健康을 增進시키게 되어서 더위를 물리치고 여름을 이기는 조흔 법이 될것입니다.



## 壯快無比한 山岳登攀의實際 (六)

崔圭用

### 登山用具使用解說

登山이 今日과가티 普及되고 또한 興味잇는 스포츠의 하나로 되것은 常識것가온대까지 갈수 잇는 交通機關의 發達도 큰도움의하나이겟지만은 先輩登山家들의 苦心한 結果 그登山用具의 發明과 考案의힘을 이저서는아니될것이다 最近登山에 使用하는 重要한 用具一二三을解說코저한다

이 단순한 用具에 登攀者의 生死가 매인것이므로 實際登攀에對하야 身體의 基本素質과練習이 充分하다할지라도 用具에서오는 失敗도 累多하다

사일(Rope, Seil)은 普通 그長이 二〇 乃至四〇米 內徑이 一二粍이며 材料는 大麻가마라 사일의 最大用途는 繩隊登攀時에 各隊員을 綜合하야 統制調節함에잇다 個人登山에는 그다지 必要를 늣기지아니할것이다

繩隊登攀時에는 사일을 先登者가 各其岩場에따라 엇개確保 무릅確保 팔確保 樹木確保 岩角確保 或은 『하켄』『카라비나』等을通하야 後登者로 하여곰 登攀케함에 使用된다 懸垂 或은 岩場에서 下降時에는사일을 두줄로꼽처다고 내려온後에 한끄틀 잡어당긴다면 스사로 줄이 내려온다 下降後『사일』을 엇더케하야 내루느냐고質問을 第一만히듯는바이다 이줄이내려오다 岩隙에끼며 내려오지아니하는수가만타 이럴때에는 줄을 맛곳에다 박추어 걱기도한다

A圖는 胸甲式懸垂 B圖는 橫體式懸垂(Body break)라는것이대 이두가지는 懸難下降時 쓰는것인데 이외에도 엇게에다『사일』을 결어 내려오는法도잇고 빌사이에 『사일』을 끼여가지고 줄을다고 내려오는法도잇다

『하켄』(Haken)이라는것은 鐵製 긴못인데 이것을 岩場틈난곳에다 打着한後 自己確保에 使用한다 岩場에서 틈난곳을 發見하기가 어려울때에는 岩面을 仔細히 살피면 틈이난곳은 반드시틈이잇는곳이다

岩面에다 『하켄』을打着한後『카라비나』(Karabiner)라는 鐵製고리를 끼우고서 그고리에『사일』을 通하야 上下를 確保하는것이다

『함마』(Hammer) 이것은『하켄』을打着시키는데 必要하다

『피켈』(Pickel) 短杖에의 木棒에다 우끝에이처럼맨들고 밋는鐵物의 針先인데 普通岩場에서는 그다지必要치아니하나 雪山 氷山 모래場用 砂山等에 만히쓰게되다

『크람폰』(Crampon)이것은 氷雪山에서 鐵釘으로맨든 구두가 登에은이다 서밋그러지지 아니할가하고 念慮하는사람들을 흔히보다 이것은이구두가 주는效果를 全然모르는사람들이다 이登山靴에다구두보선만 두켤으로 겨처신코면 아모리 皮膚가홀은사람이라도발이불으트지를아니하는것이다

其他各種用品 服裝食糧 炊爨事 特殊岩壁에對한 技術練習等 天氣에對한 適應性等 쓸것도만치마는 남은것은 後日다시 쓸 機會에미루고 貴重한紙面을 割愛하야주신 編輯者에게 謝意를 表한다 七月十九日

## 讀者交歡室

▲英文으로된 (레·미제라블)을 求함 右書를가진書店이나 諸賢이계시면 相當한價格으로 讓渡하야주기를바랍니다 慶南晋州郡晋州邑幸町二〇一 裵[illegible]根

▲G兄! 兄과 갈닌지七年 그 사이에 歲月은우습하 눈물을흘렷습니다! 兄을親慕한바추억하저녀이 한두번뿐이랴? 들으니 杜丹江某醫院에 게시다하오니 事實이온지? 新浦港 金鳳生

▲五月一日夕刊讀者社交室中市內崇仁町계신 妻東郁氏에게 쫌합니다 弟는貴兄宅에下宿할意思가잇스니 速히表記住所로 貴宅住所를明記交信하여주시오 明倫町四丁目二〇六의四 金世學

▲五月八日附社交室欄 ▲求婚生에게 貴妻弟의 人物操行其他凡節이 相當하면 適當한에仲媒할計이오니 有意하시면 貴妻弟의本籍其他來歷의 大概를回示하시는同時 寫眞一枚를交付하여주시오 本人은目下某一流會社員인 友人으로부터 亦求婚依賴을맛고 物色中이올시다

▲小生은今年十八歲少年이온데 綿布商店、雜貨商店等에 求職하고저하오니 左記住所로 通知하시면 곳가겟습니다 地方에서約二個年間經驗이有하옵니다 (但郡實商店을願함) 市內에地名 忠南扶餘郡扶餘面雙北里 吳萬根

도장아니配達을하드라도됏습니다 市內西大門町二丁目六〇 金容漢

▲審邊持麿生에게 未安하나마 左記事項을 못사오니 仔細히敎示하여주시면 感謝不已하게습니다

記

一、明治三十八年 陰三月二十五日과 同年九月初八日은陽曆으로何月何日에 該當합니까

二、距今六十四年前인 癸酉年 六月初五日과五十九年前인戊寅年 七月初二日과 四十八年前인己丑年二月初七日은 各其陽曆으로何月何日에該當합니까(義城欲知生)

▲小生은 普校六學年卒業한十九歲男子이온대 向學心이有하오나 家庭形便上 學校에通學치못합니다 咸興府內에居住하며 咸興高普나永高四、五學年在學中인분中 敎育에有意하시와 小生을 夜七時半부터 十時까지中學程度의學議을指導하여주실분이有하오면 此社交欄이나 咸興府大和町四丁目 吉林木工部內SLK生으로 通知하여주시면 進趣하와相議하겟습니다 咸興SLK生

▲映畵演劇指導機關紙創刊에投資하실분을 企望합니다 封建的精神이뿌리박고 物質과環境이다른이땅에도 今日엔映畵演劇-藝術에의 認識이高調되오나 機關紙하나가업다는것은 그社會의致命傷이며 그社會가싸워온 藝術界의暗影이외라 小生이此期會에 映畵演劇時報社를 設計中이오니 意義게신분은 小生에게 相議함을 伏望합니다 神戶市四番町四의八 鄭鏈波

▲李北鳴先生님 小生은三湖에 잇습니다가튼地方사람으로서象가흔文學을 究하난사람으로서 先生님의住所를 알지못하와 如干辛苦하든中 此社交欄을通하야先生님의住所를알고저하오니 先生님이시여 未安千萬이오나 社交欄을通하야 下敎하여주옵시기를 懇切히바라나이다

▲小生은 某官署의採用試驗에 應하려하오나 適當한受驗參考書가無하와 高下從하옵나다 貴下子弟中 今春中學校受驗에 參考하엿든書籍中(特히解答式學術研究與備等)가튼것이 古物로無所用이옵거든 安價로放賣하시기를懇願이오며 左記住所로下敎하여주시면 感謝하겟습니다 元山府本町五丁目三三四番地 金壽部

▲去五月二日漢方醫生受驗生에게奇함 漢方醫에게二三年以上臨床實習하여二十歲以上 朝鮮人이면 受試할수잇슴니다 그러나特히當局이 必要로認하는地域이아니면 受驗못합니다 準備書籍은 本人의經驗上 京城府安國町杏林書院發行 新醫學要鑑、醫生試驗問答全集等이 必要합니다 衰退한漢方醫界를爲하야 만히硏究하신을바랍니다 慶南昌原 朴光圭

▲五月五日 本欄에普文準備書를問하신 李純宇氏께答합니다 日本大學法制學會의 普文豪成講義全部면充分하며 不然이면 早稻田中學講義、法律엔 美濃部博士著의「法律學」全六冊、經濟엔津村著의「經濟學大意」가 조흔줄압니다 제게有二冊이잇스니 左記住所로 通知하소서 沙里院邑景岩里 李昌甲

▲問 一、日本內地에渡航(苦學을爲하야)코저하면 그旅行券은 어데다請求하여야만 됩니까

二、旅行券請求에 手續方法은如何? (或은 저便에아는사람이잇서야만합니까?) 手續方法을좀仔細히가르켜주시요 安州一野望生

▲生은 今年十九歲의少年인대 病院에 二年間잇섯스나 藥劑師試驗準備를 하고저하나 如何한冊을讀習하여야조흘가요 否下敎하여주시요 釜山牧島醫生醫院內 朴泉吝

## 新刊紹介

▲童話 七八月合號 發行所 京城府積善洞四五 童話社 振替京城五八七〇番 定價五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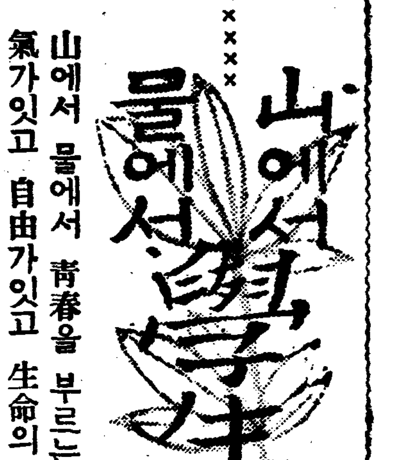
▲湖南評論 七月號 發行所 京城府明倫町四丁目二〇六 湖南評論社 京城總文社 定價二十錢

▲大成時報 第五十號(月刊) 發行所 平壤府紫町三〇 平南儒林聯合會 定價一部五錢

▲批判 七月號 目次 危機一髮의歐洲政局 蔣介石과毛澤東 蘇聯憲法改正草案全文 火葬場 막심꼬리키-의訃報를듯고! 諸氏 詩 創作等其他 發行所 京城府寬勳町一四六 批判社 振替京城二三七八七番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기를리少年 八月號 發行所 間島龍井市 기를리少年社 振替京城二五〇二六番 定價八錢 送料一錢

▲기쁜소식 七八月合號 發行所 京城府竹添町三丁目三五 東洋宣敎會 聖潔敎會出版部 振替京城一一五五〇番 定價五錢



## 山에서 물에서 學生通信 募集

山에서 물에서 靑春을 부르는 한업는誘惑! 거긔에는 勇氣가잇고 自由가잇고 生命의 躍動이잇다. 이번 夏期休暇에 名山과 大河를 차저드는 學生諸君! 이 勇氣와 自由가 넘치는 水鄕山郭에서 그대들은 무엇을 어드려하는가? 이 한업시 仁慈한 大自然의 恩寵가운데서 어든思索과 感想을 隨筆로 紀行으로 詩歌로 書翰으로 記錄해보내라!

募集規定 (中等以上程度로함)

一、原稿制限 四百字原稿紙二十枚以內

一、募集期限 自七月五日 至七月三十日

一、採擇方法 學藝部考選 (採擇된分은 薄謝進呈)

朝鮮日報社學藝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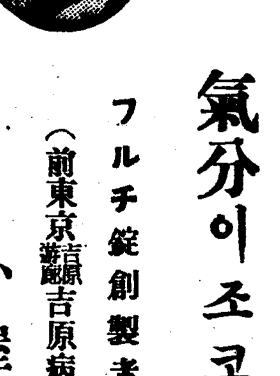

體毒이血行을妨害하면

몸이노곤하고 元氣가업서서
▲上氣眩氣
▲이러서면 앗절하고
▲頭重、耳鳴
▲肩臂痛이잇고

動悸·喘息으로 煩悶하는분은

瘀血을除去하면、血行이조화지고 氣分이조코健康하다

フルチ錠創製者 (前東京吉原病院) 小屋良明先生



夏……心臟麻痺와腦溢血로 卒倒하는이가 非常히만흔것은『瘀血』때문에腦와 心臟의動脈이 硬化하야 이더위로이러나는 急激한變化에견디지못하야 破裂하는것이므로 이러한분의 日常을 調査하여보면 거이 例外업시 頭重、上氣、眩氣、耳鳴、肩臂痛、動悸、喘息、手足痲痺 허가뻣뻣해지는等의 前兆가잇슴에도 不拘하고 至今까지의 健康을밋고 適當한治療를하지안흔것이 原因이저만 이 血管을硬化식히고 血行을 妨害하는『瘀血』은어떠케되는것인가

不知中에潛入한病毒이 酒 煙草 肉食毒 이얼키면『瘀血』

이러타할原因도업는데 머리가무겁고 恒常耳鳴肩臂痛이잇서서몸이노곤하고 元氣가업시 記憶根氣가薄弱한 神經衰弱가튼症狀에煩悶하는분과 動悸喘息에苦痛하는분과 手足과 허리의痲痺等이잇는분은 血液을通해서病毒의 反應을調査하면 毒이나타나지안는境遇가만습니다. 이것은 病毒에感染하야 治療하엿지만 아직그毒이남어잇는분과 自覺症狀이 全然업기때문에 感染을自覺치못하는분 或은兩親부터의 遺傳毒을바든분 或은 누구나體內에 깁히侵入하여잇는 體毒이 永年間不知中酒毒、煙草의毒、肉食毒、鉛毒、尿毒等과 서로얼키어서 潛在性綜合毒素 即古方醫學의 『瘀血』이되여 血液을진하게하야 血行을 妨害하고 前記의症狀이되여 表面에나타나게되는것입니다.

그래서 곳動脈이휘흐로만흘거나或은 動脈의壁을나뿌게하야 硬變식히지만 가장그害를 만히입는것은 腦와心臟에퍼저잇는毛細血管으로서 이것이 外氣의 急激한變動에견디지못하야 뿌少한일로 腦溢血과狹心症의 急死를招來하던가生命은救해도半身不隨를不免합니다이무서운『瘀血』을現代醫學의 立場에서 古代醫學의再檢討는從來實行되던 거마리와吸角에依한 瀉血法或은破血劑에依한

黑便과 瘀血

從來의 瀉血療法等의 長點을取하야아무 副作用이업시 『瘀血』을 體外에排泄하야 血行을調整하고煩悶하는病狀을 快癒로引導하는 內服藥에 依한新療法이成行되니다.

本劑는小屋先生多年의 腦溢血及心臟硏究의結晶인 新瘀血劑 (下劑가아니다)를 服用하면 直接血液에吸收되여副作用이업시 全身을도라다니면서 瘀血을 體外에 排泄하야血液淨化와 血管에彈力을주어 黑便이나오지아니할때에는 頑固하시든症狀이 自然히快癒하게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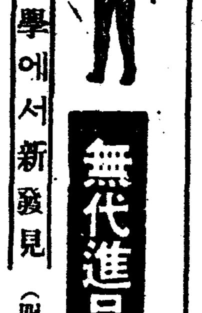
本硏究에 依한 新療法의詳細는左記의書冊(無代進呈)에依하야 아시게되실수잇다면 多幸으로생각하겟습니다

『瘀血』排除에 非常한好評

小屋良明先生創製 フルチ錠

[illegible]

古醫學에서新發見



必讀 血液循環과瘀血療法 (四六判五十頁) 無代進呈

申込所 古醫學研究所

連載野談 (六八)

# 布衾記

申鼎言 作
金熊超 畵

## 복울찢는그칼 (十二)

흥동왕자가 버섯든 옷을 다시 제겨입고 문밖을 나섯때는 벌서 붉두칠성은 엥도라지고옥호루수(玉壺漏水)는 새벽을 알리는때이엇다。

전각(殿閣)의 판자길을 고이고이거르며 좌우를 살펴새 남쪽에서 이는 바람결이 어느틈보리밭 고랑을 지나 국우고(國庫)와 공주전각(公主殿閣)의 정동마루를 한데 휘쓰러 넘어오며 옷자랑을 가볍게 흔든다。

국우고와 공주전각을 번갈러 돌려볼새 그 국우고를 볼때에는 벌서부터 감추어둔 비수를 들고 달려가서 그큰 장쇠를 대번에 비틀고 드러서 그원수의 복을 복복찢고 그 원수의 타필을 작끈작끈 밟버서 오그랑 바아지를 맨들고도 십고공주전각을 볼때에는 삽분 삽분거려가 그문을 곱게열고 들어가서 그나나리벌의 허리와가튼잘숙한 허리를 껴안고 옹당북그리워하는 그 눈맵시와 얼굴비슬 처다보고 십헛다。

미인?

증흥?

「아니야、아니야。증흥、미인。그 두가지중에서 하나도 버릴수가 업는것。그러면、그미인、그증흥을 다가리 취할것가?이것도 가능치 못한일。그리라면 이몸이 차라리 목에 피를 흘리고 죽어서 그두가지를 다이처 버리는것이 상책。」

흥동왕자의 두갈래로 난우워친 생각은 가슴속에서 이리락 저리락하고 서로 싸운다。

하며 흥동왕자는 그 취하기도 어려운 두가지。그 버리기도어려운 두가지를 모두 한울뿐은죽엄으로써 이처버리기를 생각하얏다。

바로이때!。

공주전각의 스레지리든 초롱비치 다시 밝어지며 하밋한 얇은 옷그림자가 문에 비치면서 알릉거리는양 보혓다。

그것은 분명히 공주가 서성거리는 그림자이다。

데게 공주가 그 부왕의 어전을 돌려나서 침소에 돌아와 옷을 할주어입고 자리에 누기는하얏스나 역시 잠을 이룰수가업섯다。

첫재 그 부왕의 정경이 차마잇치지아니하고 둘재로는 흥동왕자의 동량한 풍신이 눈에 떠나지아니하얏다。

그리하야 그 어지러운 생각을 가래안치려고 효경(孝經)을 끄내여 읽어보기도하얏고 또는내측편(內則篇)과 렬녀뎐(列女傳)을 서랍구워 읽어보기로 하얏다。

그러나 그 여러가지 생각중에도 흥동왕자의 생각만은 아무리해도 버려지지가 안헤진다

「허허 내가 어이라 이때지마음이 부정한고!」

하며 공주는 흥동왕자를 이저버리려할사록 잇처지지가 아니하는 그생각을 스스로 꾸짓기를 마지아니하얏다。

그리다가 공주는 또한 자긔의 일평생 압길이 생각키엇다。

「나는 남의 딸이된몸。그러커니 어느때든지 필경은 사람의 마지(聘)함을 바더 가고야말몸。그리라면、흥동왕자와가튼 남자를 내노코 어느 남자를。」

하면서 다시금 흥동왕자를 이즐수업셧다。

그리하야 공주도 어데인 기로운 마음으로써 잠을 일우지못하고 팽경은 그마음을 진정코저 등을 일어 방안에서 거닐게되엇이다。

「참!。피로운 이마음、내생전에 처음 당하는 피로운 이마음!。」

하며 공주는 글을 읽어도 글의 효험이 업고 거니러도 거니는 효험이 업음을 무한 자탄하얏다。

그리다가 필경은 울연한 심사를 비록 금치못하야 전각문을 때 어데지햇다。

아따 흥동왕자는 죽엄으로써 모든것을 이저버리려는 생각을 가슴에 품고 공주의 거니는 그림자를 바라보다가 별안간에 공주가 문을 열고 문밖을 내다 보는 그어여쁜얼굴을 보자、

「허허 잠을 못일우기는 피차 일반인게로군。괴팽성이나 잘 이 도섯는지。」

하며 흥동왕자는 그래도 혹시 공주가 자기를 보고 놀내어문을 닷칠가 두려워서 몸을 기둥뒤로 피하면서 크나큰 겨짐을 하얏다。

---

# 娛樂

## 토-키-의根本問題

### —몬타쥬에對한論攷—

⑤ 林蔚川

가령 A와B가對話를한다——

(1)A와B가이야기를하고잇다(同時性)

(2)이야기하는A의목소리가들리고、그것을 듯고잇는B의 얼골의表情만이보인다(非同時性)

②에서 들니는말소리를 A의것이라고하는것은 녀녀이(1)에서(平行法)推察할수잇다 다시②에서는 A의목소리가 B의表情과는 同一한價値를 가지게될것으로、對等히協力하고잇다

거기서 表現의機能을爲한 일을分擔하고잇는것을 理解할것이다

또 例를들면 루비취作品「내가족인사나이」 가운데 줄과 이루제가 獨逸시골거리를 이야기하며 散步하는場面이잇다 거리사람들은 佛蘭西靑年과 獨逸女子가 戰爭渦中임에도 不拘하고 親睦하게거려가는것을보고 窓문을 열고내다보고 도어를 열고 내다보고한다 그럴때마다 방울(鈴)소래가 오케스트라와가리 들녀진다(여기서同時性) 다음畵面은 줄과이루제 둘만이 거리가고잇는場面이다 그러치만 방울(鈴)은 여전이 들리고잇다 (여기가非同時性)

그방울이 단지방울소래뿐만이아니고 이상해서내다보는 거리사람들이 窓을열고 도어를여는 예술(動作)을寫實化케한다 를우리들에게보여(들여) 방울소래를 그것으로서 우리들에게 同時性으로 방울소래와 그밖에特殊한意味를가지고 그방울소래가 그畵面과는따러저서 따로獨立되야서 다른影像과協力하고잇는것이다

그런고로 토-키-에 잇서서 「音」이라는것은 單純이 聽覺的인것 心理的인것을 直接的으로 表現하는데만 使用될뿐만아니라 畵面과 表現의일을 分擔하는데 서 토-키-內容을 進展시키고 또는 音이畵面옥轉換케하는 모티-브로서의 任務를가지게된다 使用되는 畵面을轉換케하는데 使用되는 音의모티-브의例

(一) 스탄버이 「빨론드·비-너스」 冒頭 湖水에서는 女主人公이 발로물장구를친다 그것을 모리-브로해서 아이들이 浴湯가운데서 물작난치는場面으로 轉換하고잇다

(二) 루네·크렐이 「巴里祭」가운데서 밴드의演奏音을 맨들고 잇는 망치소리를 管絃樂打樂器에 「떠불」케하는데서 딴스의畵面으로轉換케하고

(三) 역시 「巴里祭」가운데서아모도업는 房안에서 짠솔찾는 안나의목소래를 모리-브로해서 畵面을 轉換하야 딴스·홀에서 포콰가 짠솔을부르는소레로하고잇다

(四) 스탄버의 「모록코」 가운데서 북(大鼓)소래가 主題로서 作品을一貫하고 잇는것은 다른意味로 注目할것이겟스나 북소래가 모리-브로서도 몃군대 使用되야잇다

其他 例는無數히 들수잇지만 이것은 오늘의토-키-에서는常識的으로 巧妙하게 使用되고잇다

다음으로 同時性 非同時性과 區別되야서 考究될問題는 「對位法」이다 우에서 「어머니」를 例로들고말한 視覺과聽覺의 對位的인것은 쉬웁게 說明한다면 對位法은 同時性을 破壞하고 音과畵面을 各個獨立되因子로서 使用하는것으로 非同時性과비슷해 보이지만은 儼然이區別될것이다 非同時性으로말하면 音과畵面이 各各表現을分擔하고協力하는데서 機能을가지고잇지만 對位法에잇서서는 音만으로나 畵面만으로서는 表現할수업는것을 그音과畵面을 對立시키는데서 나게하는것이다 다시말하면 가령 音의內容(意味)과不調和하는 畵面을 對立그反對로도可能하다)시키는데서 音이나畵面이 同時性 非同時性때 表現하지못한것을 表現할수잇는것이다

나는이러한例를明白히들어둘수잇다 —畵面— 리알리티를 非難하는 일이생기지는 를으것스되 그런 것은 問題外다 二層과간에서잇든 校長이失手를하야 미끄로뎌떠러지다고하자 校長이 창흘너떠러젓슬때 땅에「광」하고 나는소리를 現實音으로 쓰지아니하고 大砲소래로代用을한다 이때 大砲소래 自體로 말하면 조금도 우수운것이 아니지만 校長이生徒들아때 二層에서 떠러저다는 데 우수운맛을 놋기게될것이다

다른 例를들어보자——

어면아버지가 작난꾼 아들을 안치노코 訓戒를한다

---

퍽스映畵

## 귀여운「오디-」

主役인젠·위서스는상당한 연출기술을가지고잇는 아이입니다 이게집아이는 언제든지 제가노래하고 제가울면서도 제홀로 눈물이나서 배여날수업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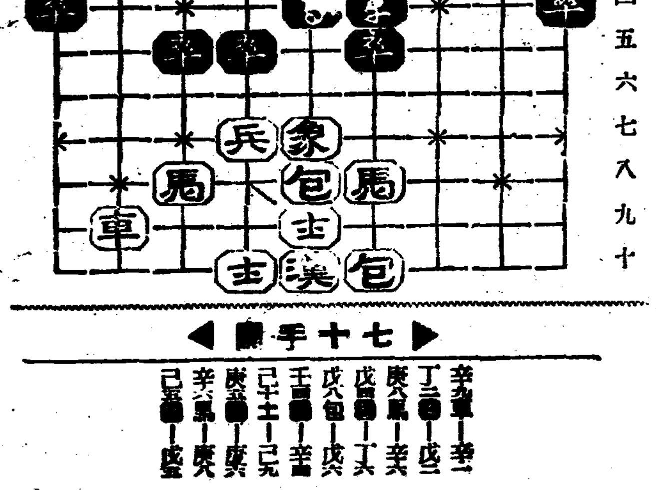
---

## 將棋名手對局譜 (七)

本社主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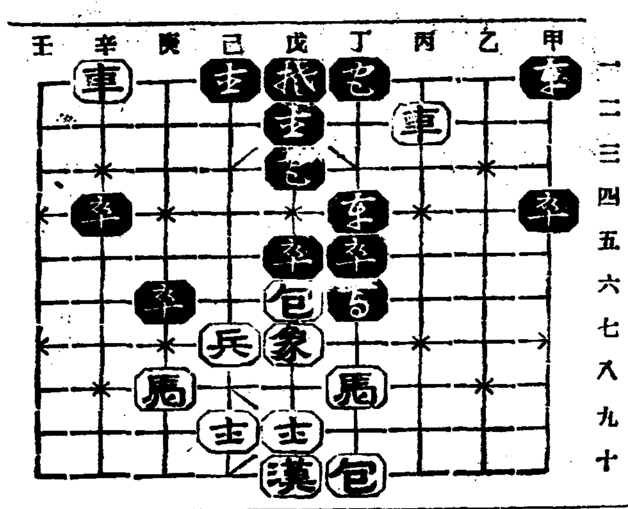
手先 淸一兵 李在晟 對 李英鎭

◀第十六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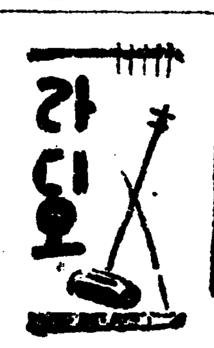


◀第十七手圖▶

辛九車—辛一 丁二卒—戊二 庚八馬—辛七 戊四卒—丁五 戊八包—戊六 壬二卒—辛二 己七士—己八 庚九馬—庚六 辛八馬—庚六 己五卒—戊五



---



## 라디오

### 二十日 (月曜)

◇午後六時三〇分 兒童劇 두루미會
指揮金 相 德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經濟解說
朝鮮日報社 徐 椿
◇同八時 朝鮮文化講座 (一) 崔 南 善
—山岳傳說의밤—
◇同八時三〇分 白頭山과朱果 柳 光 烈
◇同九時 漢拏의三神人 車 青 吾
◇同九時三〇分 胎封山그일홈 申 鼎 言

### 第一放送

◇午後六時 (大) 連續漫畵劇
◇同六時二五分 講演
◇同七時三〇分 (東) 講演
◇同八時 (東) 피아노와管絃
◇同八時二五分 (大) 俚謠
◇同八時五〇分 (東) 詩吟
◇同九時 (東) 落語

### 二十一日 (火曜)

◇午後〇時五分 古談〃康濮〃 白 岳
◇同三時一五分 婦人時間〃家庭과信仰生活〃 朱 壽 元
◇同六時三〇分 피아노獨奏 李 慶 元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經典解說 尹 乙 洙
◇同八時 朝鮮文化講座(二) 崔 南 善
◇同八時三〇分 雅樂—李王職雅樂部로부터中繼—
一、管樂 慶豐年 二、合樂維皇曲
李王職雅樂部員
指揮樂士長 咸 和 鎭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老人歌 二、唱劇調華容道 方應歌 鼓手韓成俊
◇同九時三〇分 映畵이야기 『眞珠목도리』 李 承 雨

###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 速成獨語講座 (一) 登張信一郞
◇午後零時五分(大) 토-키-中繼
◇同六時(東)여야기 本間 淸人
◇同六時二五分(東) 講演 保科 孝一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大間 果雄
◇同八時 漫談 雄野三毛雄
◇同八時二五分(長) 日本알푸스 日本알푸스中繼風景
◇同八時五五分(東) 浪花節 玩 波 雲

---

## ☆曆☆

七月廿一日 (火)

舊乙未六月小(初三日)

甲辰·火·危·收

●祭祀嫁娶移徙裁衣上樑辰時納財安葬에官함

●大暑二十三日(舊初五日)

●立秋八日(舊廿一日)

---

一塗爽快感

키칭시무다 小林

짐버쉬·남백·좀무·진삼방음·짐배

浸透性深達療法

가렵다!

견딜수업시 가렵다!

한번바르면 다무시칭키 偉效能!

「참으로잘듯는」 단것은한번서본분의讚辭이다

그러치요!

濟伏菌 ...

健皮의再生을促進하며 快히治癒식히는이것에 本劑의特長이다。

小林大藥房

大阪市東區 名古屋廣小路

藥店 デパートにあり

20 30 50 1.00

볏헤절지안코살결을곱게한다

살바당을整齊하고야 참다운化粧이될니다

그어는朝タヘチマコロン으로살바당을기루는것이第一입니다

化粧下에·白粉투는데·벳꺼플防止에·沐浴한뒤에

ヘチマコロン

에취마코론

# 穀物檢査制에 缺陷 受檢數量이 半減
## 咸南北江原三道上半期統計
## 一百九十萬石에 不過

【咸興】 미곡검사나 곡물검사(正租檢査)나하야 소위생산농민들의 리익옹호와 생산품의질향상을 도모한다는 검사제가 실지운용상에잇서서는 그수속이나 또는그결과에잇서서 생산자인농민들에게 막대한불리익과 불편을주게되는폐가 비일비재의현상인데 이번함남도농무과에서 집계한각종곡물검사상황통계를보면 더욱그결과를알수잇다

금년일월부터 륙월말까지 함남,강원,함북(咸南,江原,咸北)의 삼도에서 정조(正租)현미(玄米)백미(白米)대소두등 곡물검사한수량은 일백구십오만이천석에 불과한바 이를작년동기의 오백삼십만석으로서 이를작년동기의 생산에비하면 절반도못되는 사백만석이나 줄엇다 물론이곡류의생산액은 작년보다도늘엇는데 검사수량이 이와가티격감한것은 이검사제가 미루보한바와가티 그수속에잇서서 매우번잡(煩雜)한것과 또한검사수수료라는 적지안흔희생을 서 보게되므로 검사를바더야할 농민들이 매매하게되는것에 원인된다할것은 말할것도업다고한다 이에 대하야 직접영향을 밧는것은 정미(精米)업자로서 작년말부터 금년륙월까지、미곡의 출회가 업서서 전리삼도내정미공장은 거이반휴상태에빠저 종업원들의 생활상위협은 물론이요 경제계도 극히 한산하다고하는데 관계농민들이나 정미업자들은 신속한이수속의 수정을요망한다고한다 검사곡물을 종별로보면다음과갓다

| | |
|---|---|
| 籾 | 四〇三、一四一石 |
| 玄米 | 二四三、一二九 |
| 白米 | 一七六、〇五三 |
| 大豆 | 一、〇九三、九七九 |
| 小麥 | 一三、〇三七 |
| 小豆 | 八、三九一 |
| 菉豆 | 二、〇六六 |
| 其他 | 一一、七六一 |
| 計 | 一、九五二、一五七石 |

# 旱魃에 漁凶까지 農漁民流離續出
## 北朝鮮農漁村에 大異狀

【三需】 계속되는한발과 미증유의 어항부진으로 인하야 청진이남(淸津以南)과 원산이북(元山以北)의 농민과 어민들은 말할수업는 참경에 빠저잇는바도튼바에 의하면、북조선일대의 어민과 농민들은 살길을 엇지못하야 발서부터 류리(流離)를 시작하게되엿다는데 이현상대로얼마간만 지속된다면 농촌과어촌은 말할수업는 참경에 빠지리라고한다

## 羅承奎氏出獄

【長城】 라승규(羅承奎)씨는사변일개월만에 지난칠월 건강한몸으로 출옥되여 다수유지들의환영리에 귀성하엿다고 한다 장성협동조합(長城協同組合)사건과 장성로동조합(長城勞働組合)사건으로 오래동안 전주지방법원(全州地方法院)에서 예심에잇다가 협동조합사건은 무죄판결을받고 장성로동조합사건으로치안유지법위반으로 수형중이든장성군 삼서면 매곡리(森西面大…)

## 電話抽籤結果

【城津】 소화십일년도 성진전화 지급개통은 다음과갓다고한다
◇優先權保有者──城津鐵道事務所長官舍 京城日報社城津支局 朝鮮日報社城津支局 北鮮日日新聞社城津支局 城津神社申副邑長 城津邑庶務主任私宅
◇抽籤者──李華植 金有根 徐有奉 若狹縫太郎 森本昌萬 任鼎俊 武永源太郎 岡田金 靜鳳 白尾廣重 林光云 金東南

## 元山驛前에大火 旅館一棟全燒

【元山】 지난십구일오후세시이십분경 원산역전에잇는 수월려관(水月旅館)창고에서 발화되여 불려오는서풍에 맹렬하타올으고잇는것을 부근사람이 발견하고 곳 소방서에 통지하엿스나 때는 수도가단수되여잇서서 진화치못하고잇다가 약십분후에야 원산의에서쓰는수도를틀어 진화에 노력하엿다 그러나 때는이미느저 엇지할수업시 동려관이 전소되고말어 태워버리고 동다섯시반에야 겨우진화되엿다

그런데 이곳은 원산에서는가장 번잡한역전(驛前)이라 교통이 두절되여 일시대혼잡을 일우엇섯고 따러서 편전한건물에연소를 두려워하엿스나 다행히 피해가 업섯고 건물과 물품의 총손해는 약일만오천원가량이며 다행히 인명에는 피해가업섯다는데 발화원인은 방금 원산서에서엄중 조사중이므로 취조의 결과를 기다려야 할것이라고 한다

## 立石體育會創總

【立石】 안주군 립석시민(安州郡立石市民)들은 청년들의 체육을 위하야 지난십칠일 립석공립보통학교(立石公普校)에서 립석체육회(立石體育會)를 조직하엿는데 임원은 다음과 갓다고한다
會長 金熙 總務 金泰善 高起 朴鍾京 孫應賓 會計 林春甲 幹事 李三俊 金貞淑 高建吉 高鍾律 金貫永 任貞淳 鄭鳳高 孫奎 李炳烈

## 本報支局後援 個人庭球大會

【木浦】 목포체육협회(木浦體育協會)에서는 본보목포지국의 후원으로 어머 오는칠월이십륙일에 …

## 中國明淸時代 書畫展覽會
### 本報平壤支局後援下에
### 二十五日부터三日間

【平壤】 조선상공신보사(朝鮮商工新報社)에서는 본사평양지국후원으로 이십오일부터 이십칠일까지의 삼일간 매일오전아홉시부터 오후아홉시까지 백선행기념관에서 중국명청시대서화전람회(中國明淸時代書畫展覽會)를 개최하게되엿다 출품점수는 오십여점에 달하여 실로 구경하기어려운 걸품이라는 평이며 동방문화의 발상지라고하는 연경(燕京)을배경으로 제일급의 전조선 개인절구대회를 비애 보라하는 주최측에서는 이번에 일반은다 수장가를 히망한다고한다 로의 일반의 흥미가 적지안흘것이다 일반 남녀가의 거장 김수암(金守岩)회백의 개인전도 동시에 개최하기로 되엿다。

◇出品畫名 二十八種畫者 十四
仙人像 孔子像 古松 石翁 黃
…

## 朝鮮人靑年會 第四回定總

【安東縣】 안동현조선인청년회에서는 제사회정기총회를 지난십팔일 오후팔시부터 안동보육원(安東保育院)에서 류동광(柳東光)씨의 선서하에 개회되야 각경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의사의원을 개선한후 토의사항은 시간을 늘어키로되엿스나 일시이상은 협회경관이 십일시이상에 폐회되엿다한다
▲會長 柳東光 ▲副會長 高有文 ▲文藝部長 申彦雨 ▲總務部長金問直 ▲體育部長 高定悅 ▲宣傳部長 李喜京 ▲總務部員 李東燮、朴昌燮、金永集、▲文藝部員 崔成俊 ▲體育部員 君天植 任善彬、金東河

# 千餘農民이 登山 正芳山古墳發掘
## 명당에 묘를써서비안온다고
## 旱魃이나흔새話題

【鍾城界】 함경북도 종성군(鍾城郡)와 경성군경계정방산(正芳山)은 명승지로서의 이름이 널리알려잇지만 그산정(山頂)에왕후지지(王侯之地)의 명당자리가 잇다하야 예로부터 명당자리를 찾는이가 적지안흔데 근자에 이르러 이명당자리에 암장(暗葬)하고 부귀공명을 꿈꾸는 미신자가 생기엿다는데 도경 부근(富寧)일대의 농민들은 일명씩 총동원하야 지금정방산내에 암장하여 이명당자리에 들어가서 이 분묘를발굴중이라는데 이산에 몰래장사하엿스므로 비가오지안는 다하야 지난십구일에는 창천(蒼天)을바라보든 농민들은 고사하게되도록비가 오지안는 데 경성군청면(靑嚴面)과 부령군관해면(觀海面)의 농민들이 총동원하야 이산에 들어가서 이 분묘발굴중이라는데 이산에 묘를써서 비안온다는 실로 어이업는 미신이다 한다

## 吉州支局後援 關北個人庭球

廿六日吉州코ー트에서

【吉州】 길주지방의 스포ー츠계를 위하야 힘을쓰고잇는 길주서원(吉州書院)에서는 금년에도 례년과 마찬가지로 제오회관북개인정구대회(第五回關北個人庭球大會)를 본보길주지국후원으로 오는 이십륙일 길주코ー트에서 개최하리라는바 참가금은 매팀에 오십전씩 이십오일까지 주최측인 길주서원에 신입하여주기를 바란다고한다

## 大田地方에 松虫蔓殖
## 救濟策을 陳情
## 面長會議까지 開催

【大田】 요사이대전(大田)과 대덕(大德)군일대에는 송모충(松毛虫)이 번식하야 여름밤의대전가두에는 송모충의나비로 말미암아 대혼잡을 일우고 대덕군에는 삼림이거의전멸상태에 일튼곳까지잇서서 크게우려하게되야 지난십팔일은 대덕군각면장이군에모이여 송모충구축에 대하야 만반의협의를한후 도당국에 구제에 원조하야 달라는진정까지 잇섯다고한다

## 昭和普通學校 運動場完成在邇

【安東縣】 금번부터 개교된 안동소화보통학교는 긔금이업서서 운동장을 설치치못하여 일천사백명의 생도는 물론 선생과 학부형까지 유감으로 역여오든바 유지김호찬(金虎贊)씨의 삼백원긔부금과 학부형측의 특별 오십원 긔부금으로 근근 동운동장이 완성되여간다고한다

## 地方人事

▲高安彦氏(慶南內務部長)樂韓人事次本報釜山支局來訪
▲大野餘平氏(前慶南道會計課長)退職人事次本報釜山支局來訪
▲鄭寅河氏 (前平壤府會議員)元山에轉地療養中 別世 二十一日午前八時 平壤府碑九里自宅出棺葬儀
▲石塚高雄氏 (前安岳警察署長)璧潼署榮轉人事次 本報安岳支局來訪
▲金周百氏 (啓蒙社林業部主任)新任人事次本報永興支局來訪
▲山路宗太郎氏 (泥谷公普校長)新任人事次本報三岐分局來訪
▲古部順作氏 (前京城地方法院江華出張所主任)陽平轉任人事次本報江華支局來訪
▲淸鳩彦氏 (京城地方法院江華出張所主任) 新任人事次 同上

## 怪! 慘! 同甲의三處女
## 計畫的同盟自殺
## 품등이를서로동여매고投身
## 原因조차알길업서

【鎭海】 지난칠구일 아츰일즉 진해웅천면동(熊川面)에서는 (貯水池)저수지에 물동이를 서로매고자살한 세처녀의 서체를발견하얏다 세상에는 자살하는자가 만치마는 이와가티 묘령의 처녀로서 세사람이 물동이를 서로매고 자살한것은 별로히 드문일인만큼 부근사람은 남녀를물론하고 웅시수백명이운집하야 대혼잡을일우엇섯는데 그처녀들은 어대사람이며 무슨원인으로 자살케되엿는지 알수업는바 마츰그들의 동무가 진해제사공장(鎭海製絲工場)에 잇게되엿기 동리로 비로소 그처녀들이 창원군웅남면안민리(昌原郡熊南面安民里)의사람이것을알게되엿는데 자살의원인에대하야는 자세히알수업스나 이와가티 세처녀가동맹을하고 자살한것으로보아 무슨말못할원인이잇는것은 사실인듯하며 그들의 시체는 그의친족에게 인도하얏다는데 자살자의성명은 다음과갓다한다

昌原郡熊南面安民里 李紀化長女 趙順(一七)
同 李鳳守長女 仁乃(一七)
同上 朴熙不女孫 達守(一七)

## 淸州郡內의 移秧 大部分은完了

【淸州】 청주군내의이앙상황은가덕(加德)문의(文義)옥산(玉山)오창(梧倉)현도(賢都)오개면을 제한외에는 전부완료되엿스나 동오개면의 약오칠정보는 이심일까지 백오십미리가량의 우량이 업스면、이앙불능상태에 이를것이라고 당국에서는 대용작을강구중이라한다

## 少婦自殺企圖
## 媤母虐待못이겨

【春川】 고부간의 불화가 나은비극! 지난십칠일 오후칠시반경귀성군귀성면우부동(右部洞)차모(車某)의딸 차윤옥(車允玉)(一九)은 동면양재물을 다량으로먹고자살을 하려는것을 곳 가족이발견하야 생명은 구조되엿다는바 그원인은 산부윤옥은 작년(張某)의 집으로 시집을갓든바항상 시어머니와 의가조치못하여 나날이 시어머니학대가심하야 부득이 작년시월경부터 자긔본가로도라와잇든중 시어머니마음은 그냥변치안코 자긔를 배척하는소리만들리므로필경죽어버려 괴로운세상을 보지안켓다는 생각으로 그와가티 음독자살을 도모한것이라한다

## 金融組合員들이 시내를
… 아다니면서 상십여대의 자전차를 절도하야 팔어먹은사실을자백하엿다는데 취조하는 경관도 이뜻하지안흔 범행에 아연하야 마지안는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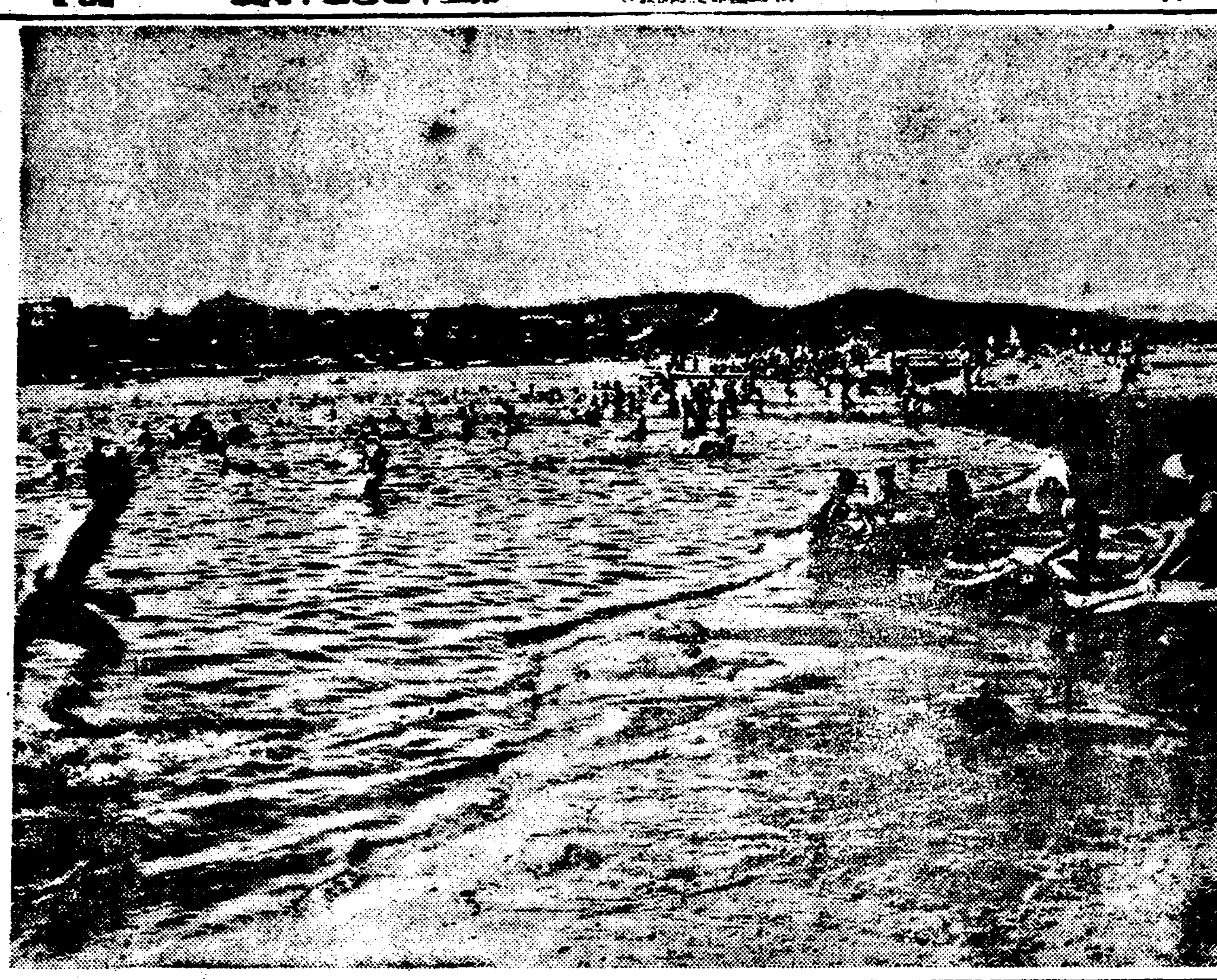
## 城津 延專蹴球遠征團歡迎試合

▲時日 七月二十二日
▲場所 城津普信男學校運動場
◇主催 普信同志會
◇後援 朝鮮外二支局

# 怨恨은무엇?

## 制服의中學生으로 專業은自轉車盜
## 被害件數가三十餘件

【慶州】 최근제복의 학생들의등귀가 문란하야젓다는것은 일반부민사이에 말이자자한바 어니와 현재제복의몸으로서 학동부내를배회하면서 자전거 절취를 일수로한 악질중학생이 너발견되여 학동서에 피검되엿다 그는 현재부내 모고등보통학교삼학년에 재학중인 김성(金誠)(一七)(假名)이라는소년으로 …


◇……보기만해도涼味萬斛(大同江)

今 廿一日 日

午後三時부터
「南原邑廣寒樓에서」
# 徐椿氏經濟大講演
◇主催 南原邑
◇後援 朝鮮日報社南原支局

## 愛慾의彼岸 【57】
李光洙 作
金康穆 畫

윤주는 약간 나중 불히면서
「이사람아。아모리 취담이기로 그게 무슨 소린가。혜련씨가 발서 중에 여러들오다니 그게 말이 되나? 그럼 소리는농담이라도 하지말게。명예관계어든」하고、엄숙한 비출 보엿다。
「허、이놈보게。내가 다 보앗는데。이눈으로 보앗단말야。혜련씨가──암다 머놈에기가 비외투를 입고 우산을 밧고──그때도 자정은 되엇서。비가 퍼붓는데、이리로 와서는 자네가 문을 열고 마자들이는것을 보고、어 이놈 윤주놈 잘한다、허구、다 내넘이──이 예비가 알고잇는데 무슨 소리야? 안 그런가、경철이。」
하고 경철을 돌아보다가 경철이가 띄띄웃고잇는것을 보고、
「이 자식은 왜 실것거시리 웃기만 해。되지못한 자식。어른이 무슨 말슴을 하시거든 떠에 대답도 안하고」
에 대발도시 빨드기만 하고는 결결 웃어버리고 만다。
마치 이러한 일을 긔회로 술이 깨드시、경철이 가튼것은 안중에도 업다는드시、어울도 침신 불평하게、
「그런데、윤주。아까 종로통 검 서를 지나오는데 불빵 건호가 포승을 지고 붓들려오데。암만 해도 건호야。내가 그 얼굴을 들여다보랴니까 외면을 하거든 자네 혹시 무슨 일인지 아나?」
하고 윤주를 본다。
「사긔취재겟지 무어야?」
하고 불평혜떤 경철이가 별서 성이좃려서 말참견을 한다。
「그 못난이가 사긔취재를 해?」
「그러면 제벌이겐」
하고 준상은 경멸하는드시 알에 입설을 내민다。
윤주는 가슴에 집히는비가잇섯스나 아모 말도 하지아니하엿다。
「사긔취재가 아니면 절도겟지 궁한놈이 짓는죄가 이두가지밧게 잇나?」
하고 준상이는 제일인드시 픽웃으며
「강도질 할 긔운은 업고。원체 건호란는 놈팽이가 건방지단말야。나ㅅ개나 먹엇다고어른노릇 하려들고 나이나 먹으면 어른이야?돈이 잇서야 어른이지。제나 내나 삼백살을먹기로니 영감마님ㅅ소리 한번들어볼렌가。깃것 이생원이나 이주사지。인력거 잇슬적에는 우리네도 인력거만 라면 서방님이오 나으리섯지마는 인제는기생아씨허고 파리날리는 의사나부랭이밧게는 인력거도 안타내로 알고 맛고 자빠저서 빈대허레 잘 뜻기겟네。그놈의유치장 빈대란 지독하거든 유치장에가는놈치고 제나내나 살만한놈 잇겟냐。그러니깐으루 이놈의 빈대들이야만 늘어서 사뭇 몰어뜻는단 말일세。허기야건호진엔들 돈이 엇지 빈대야업겟나? 그러나 저러나 그마누라가 알아서 전당ㅅ길을 바라본다는데──그리고 웬 새끼는 또 내질러서 제나 내나새끼를 나흐면 웬 팔자 조흔것이 나리라고──이잉」
하고 마루ㅅ바닥에 춤을 려 뱃는다。
이러케 울하고 섯는것이야」하고 정말 자식을 꾸중하드시 점잔을 뗀다。감기라는 눈을 억지로 뜨랴고 애쓰는 준상의 꼴이 윤주에게도 우수웟다。
「웅 잘 됏네 잘 됏서」
하고 준상은
「그래야 쓰지。혜련씨 끄랑지만 꽉 붓들고매달리면 천석 하나는 때는 당상이다。네가 잘살면 설마 이애비 밥 굶기겟니。또 인」
하고 경철의 팔을 와락 잡아끌면서
「또、이、네、어붓 동생놈말이다。이놈도 불과 삼년에 돈푼이 잇는것 다 깝질러버리고 나가리 남의 집 사환노릇을하게되겟지마는──어 이놈 경철아 너 발꿈게되거든 이、네、성의 집에만 가! 그러치 운주야」
하고 준상은 더욱 취하여진다。아마 어듸서 꿉부술을 사먹고 들어온 모양이다。
「이것은 왜 악담을 해?」
하고 경철은 정말 골이 난드시 일어나면서 준상의 따귀를 부친다。
준상은 벌떡 일어나서、경철


매독
ネオ、スピロチン
京城南大門通一ノ三
大同製藥社



# 기침에 잘듯고 먹기좋은 약

백일해・홍역
밧튼기침・천식
인후염・만성담
기침・감기폐염
으로인한기침에

뜨거운해ㅅ빗이내리쪼이는요새는 무서운 기침병의류행기입니다 하로밧비 지밋신으로 곳처주시사 위험한병발증을 미전에 예방하여주십시요 어느가정에도 꼭한병식 준비하여두시면 무사히 여름을 지낼수잇슴니다

## 백일해・홍역

기침병중에도 가장고통이심한백일해 홍역의특효약으로구미각국에서유명한「지미草劑」의대표적제약으로 정확한효력이잇슬뿐만아니라 맛이조흠으로써 약을실혀하는어린애라도잘먹게됨으로 더욱유명하며 더구나 국약성분과 마취성분이 조금도석겨잇지안음으로 절대안심하시고 사용할수잇는약임니다

그럼으로 전문가의림상치료에도 늘 청찬을밧고잇는약으로써 백일해갓치 오래쓰는병도초기에사용하시면 예방이되며 진행중에사용하시면 성과를빨으게하고、고통이심한발작을다스리며 구토와쇠약과 무서운병발증을방지하고 밤잠을잘자게 만들어줌니다

## 밧튼기침・천식

조선은 기후와토질의관계로 특히 밧튼기침천식…호흡기병으로인한 담・기침이만흐니「지밋신」은 조선사람의체질에 꼭 맛는만큼무슨약보다도 부작용의염려가업서 잘듯고잠을잘주무시게만들어주며 속히근치식혀준다고 칭찬과감사로 환영을밧고잇슴니다

一五〇瓦…一圓
三〇〇瓦…一圓八十錢
全道藥房에서販賣함

チミツシン
지 밋 신

發賣元 東京市日本橋區本町 株式會社 田邊元三郎商店

TY-K.00

# 朝鮮內金融體系

## 所謂一縣一行主義는 國策遂行上實現企圖

◎……申 泰 翊

그럼으로 오늘에잇서는 大銀行主義에서 한거름을 떠나야가 만主義行의單一化하야 統一 金融統制를 目標로하는 點이 强化되리이다 이외가 金融統制의 强化를 爲해 아닐수 업는 理由는 前回에서 말한 國防上에 基하야 거의 그 全部로되며 高度財政의 一縣一行主義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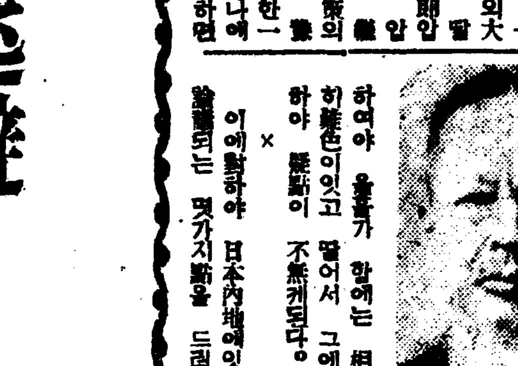
첫재 赤字公債增發을 因한그 消化力의 作用을 막어 赤字財政의 支障을 미리 除去하라는點

둘재 銀行이 散在하면 金融統制의 徹底를 期키어려우므로 이것을 一單位化케하야 그統制를 순쉬웁게하라는點

셋재 地方金融의 …的低下를 企圖하고 또 農村地方의 金融狀態를 …케하라는 點 等에 對한 …的意義를 期하게는 地方銀行倂合의 必要上 그統制를 要求되는것이다.

×

이點에잇서 …一縣一行主義는 … 銀行促進政策과 그意義가 짤 … 될수잇다 …



今後財政膨脹에關한 …에對하야 나아갈 境遇에는 多數한小銀行의 散在로 어느때에 어떠한 障害의 原因이 될는지 몰으는 不安性이 잇다고 본때문에 一縣一行主義이란 目標를 두게되고마것이 다 그러므로 …財政에 잇서는 政策遂行上 銀行의 一單位化에 손을 대이라고 할이 事實上 …이라고 생각할수밧게업다 이러하고해서 오늘의一縣一行主義는 손쉬움을 보게될것이라고 그 實現을 보게될것이라고

×

이에對하야 日本內地에잇서 論議되는 몃가지點을 드려보면 하여야 울흘가 할에는 相當히 難色이잇고 떨어서 그에對하야 疑點이 不無케되다.

면 다음과 갓다

（一）地方銀行中에는 實力이 적다고 하지만 … 經營에 잇어 中小商工業金融에 …하바가 적지안타 이를 不拘하고 一縣一行主義의 形式을 强要하기 爲하야 합함으로 合同을 …하는 地方金融의 實情을 無視하는 結果가 되는點

（二）合倂實行者에는 從來의 本店이 一支店으로 되는까닭 그經營이 劃一的으로 傾하야 對人的信用으로해서 自然히 地方金融을 …케될念慮가 잇는點

（三）地方銀行의 …이 少額金融을 …하게 …中小商工業者, 農民에 對하야 …을加케될것갓다는點

（四）地方銀行의 不振은 多數한 銀行이 倂立한 結果라고 말하는것보다 都市大銀行支店의 設立으로 因하는 境遇가 만타 이것을 내버려두고 地方銀行만을 合同케하드래도 地方銀行界는 安定되기가 어려운點

（五）合同의 結果 銀行株의 相互流通이 封鎖되야 地方金融界의 …를 …해야하는 點

（六）合同의 結果 만 大銀行의 이 … 國民生活安定上 매우 …치못한 …을 보게될것

×

다시 以上에 對하야 大藏當局에서 辯明하는 點을 들어보면 다음과 갓다

（一）一縣行主義라고 하지만 이것은 決코 行政區에 拘泥하야 一縣一行을 實現케하려는 것이 아니라 一經濟圈을 單位로 하는것이다 …

（二）今後合倂에잇서는 各支店의 …을 決코 劃一的으로 … 안되게하고 各各地方的 特殊事情 對人的 特別關係를 考慮하야 …

（三）… 的 調査를 한바에 依하면 地方에서 少額金融을 …하는 …이 …할것 …

（四）大銀行의 地方支店은 地方銀行이 업는 곳에 必要하고 또 中央金融界와 …

（五）自行株를 擔保로 할 수 …

（六）들수잇는대로 失業者를 …

# 財閥, 個人富豪 巧妙한資本逃避

## 貿易, 保險, 海運取引等으로

## ◇…今後增加할傾向

### 惡性인플레豫想

騰貴에 伴하는 인플레 時代가 不遠에 招致케될것이라는 豫想이 漸次擴大되는터이다 이에잇서 三井, 三菱, 住友와 가튼大財閥은 오늘에 財政經濟의 趨向대로 그運命을 맷겨버리라고한다 그런대 日本內地의中小財閥或은 個人의富豪中에는 惡性인플레의 不遠到迫을 豫想하고

嚴重한 資本逃避防止에關한法網을 버서나 그財産을 外國으로 가

軍需景氣의 膨大로 赤字公債의 消化難에對한 不安이 漸次濃厚하야 物價騰貴와 紙幣價値의 下

저가는 現象이 생긴다 그動機는 直接軍需를 …의 好影響을 안밧는것도 理由가 되나 그 根本에는 猶太人的 國家를 超越한 財物至上主義에잇는點이다 그들은 貿易 海上保險, 火災保險, 海運의 取引을 利用或은 旅行資金의 流用等에 依하고 最近에는 外國船에 依하야 海外로 渡航或은 日本船에 依하드래도 極

取引을 利用或은 … 國外로 나아가는사람이 만흠을 보아서 알수잇다 上의現象을 推知케하는 材料가되다 勿論그方法도 …하고도 官憲의取締가 매우嚴重하므로 오늘에잇서 資本逃避의 金額이 甚大치안흐나 低金利와 인플레進行에따러서 늘어가라는 傾向이 잇슴으로 매우 注目을 끄을고잇다

# 朝鮮內電氣統制

## 十月一日에完成

### 全朝鮮四區의配電에 二大發電體系完成

朝鮮內에 電力統制計畫은 遞信局의 方針에 基하야 實行着手以來 着着進捗하야 不遠에 그完成을 보게되엇다 卽 發電에잇서 北은 長津江 發電을 中心으로 하고 南은 朝鮮電力을 中心으로한 大發電計畫이 樹立되야 이二大發電을 基幹으로 西朝鮮, 北朝鮮, 中朝鮮, 南朝鮮으로 四區分한 統制配電에 電力의 配電網이 確立되고 電燈電力料金은 統制合同과 同時에 低下하야 産業朝鮮의 原動力으로 그使命을 다하라고하며 各配電統制區域은 大體十月一日로써 完成되야 明年四月부터 남어잇는 南朝鮮 一部合同의 大同團結을 目標로 나아가기로되고 目下그目標에 向하고잇는 配電合同의 大要는 다음과갓다

▲西朝鮮地方＝（一）西朝鮮合同의 開城電氣合倂은 二十五日의 兩社各株主總會에서 正式決定하고 十月 一日부터 實現

（二）右에 依하야 西朝鮮地方에 남어잇는 配電會社는 新義州電氣 會社뿐인데 이것은 目下折衝中으로 八月中에는 交渉이 成立될모양이며 西朝鮮地方은 十月

▲北朝鮮地方（一）昨秋 咸興合同當時 大興電氣 咸興支店만 이남어잇섯는바 이것은 지난 十日의 株主總會에서 決定하고 今秋十月一日로써 合同이 實現

▲南朝鮮地方（一）目下 南朝鮮地方에는 三十一社가 分散되야 이것을 一時에 全部合同케할은 事實上 어려운 때문에 于先 다음의 六社를 中心으로 合同

（二）釜山瓦電系, 大邱大興電氣系, 大田電氣系, 天安電燈系, 南朝鮮電氣系, 木浦電燈系

（三）이미 合同假契約을 끈내이고 今秋十月一日로써 合同實現할것은 다음과갓고 그밧게는 모두 順調로 交渉이 進行하야 十月까지 合同參加케될모양이다

（가） 大興電氣系（九龍浦, 甘浦, 蔚山, 河東, 巨濟, 麗水, 順天, 盈德, 慶州各電氣）

（나） 大田電氣系（公州, 利長院電氣）

（다） 天安電燈系（忠南, 平澤溫陽, 大川, 瑞山, 城南各電氣）

（라） 木浦電燈系（哪和, 光州電氣, 長興）

## 順調進行

### 內容充實이目標

今井電氣課長 談

朝鮮의 電氣統制는 매우 順調로 今秋十月로써 一段落을 告할터인데 南朝鮮地方은 多數分散하야 먼저 十月에 六社系로 맨든뒤 다시 明年四月부터 大合同케할計畫을 남겨두엇다 合同條件의 比率은 四掛乃至九掛로 小電氣會社의 資本金을 引下하나 統制의 目的이 一般料金의 低下와 內容의 充實에 잇슴으로 큰目的을 爲하야 할수업다고 생각한다 어쨋든지 이 마음의 大事業이 全朝鮮的으로 統制됨은 매우 조흔일이다

## 京春鐵道創立

### 廿日總會終了

京春鐵道株式會社創立總會는 二十日午前十時부터 열리든 發起人會에 繼續하야 午前十一時부터 銀行集會所에서 열고 有賀設立委員長이 議長으로되야

一, 京春鐵道會社設立에 關한事項報告件

二, 定款承認의 件＝을 異議가업시 承認하고

三, 取締役及監査役選任의 件＝議長指名으로 取締役에 牛島省三 鹽川清吉, 菊池一德, 金秊洙, 山中友太郎, 村上九八郎, 富田直次, 伊藤旺, 監査役에 迫間房太郎, 淺野太三郎, 朴普陽의 諸氏를選任함

四, 商法第百三十四條에 依한調査報告의件＝議長指名에 對하야 三好德太郎 田中篤二의 兩氏를 選任

五, 會社設立代表者 取締役을 定할件＝牛島省三氏를選任

六, 取締役及監査役의 報酬를 定할件＝一萬二千圓으로決定한뒤 三好德太郎氏로부터 檢査報告가잇고 同十一時二十分에 못내엇다고한다

## 社長牛島省三氏

專務에鹽川淸吉氏

京春鐵道에서는 二十日 創立總會를 終了한뒤 곳 第一回重役會를 열고 常務取締役을 互選한結果 다음과가티選任하엿다고

▲取締役社長 牛島省三 ▲專務取締役 鹽川淸吉 ▲取締役支配人 伊藤旺 ▲取締役技師長 富田直次

## 大株主別內容

京春鐵道의三千株以上大株主別內容은 다음과갓다고

▲三〇, 〇〇〇 殖銀 ▲八, 〇〇〇 山中友太郎 ▲七, 〇〇〇 久武常次 ▲六, 〇〇〇 米倉, 朝鮮信託, 貯銀 ▲五, 〇〇〇 有賀光豊 淺野太三郎 金秊洙, 池奎政, 迫間房太郎 ▲三, 六〇〇 鹽川淸吉 ▲三, 〇〇〇 崔養培 齋藤久太郎

## 中旬對外貿易

出超四百九十萬九千圓

【東京電話同盟】大藏省發表에依하면 七月中旬對外 貿易槪算調査는 다음과갓다（以下單位千圓）

| | |
|---|---|
| 輸出 | 六八, 六三六 |
| 輸入 | 六三, 七二七 |
| 合計 | 一三二, 三六三 |
| 出超 | 四, 九〇九 |
| 一月以後 丁超累計 | 三一八, 五三六 |

## 取引停止

（七月十六日）▲京城

## 經濟界消息

○南北米倉町一四三番地 西村商店 西村格 ▲自動車乘京城府 鍾路三丁目七一番地 吳曉善

○滿洲紛系特約店日粉引繼＝三井物産京城支店에서는 日粉의 引繼者 滿洲製粉, 沙里院의 酬工場을 買收한때문에 同酬工場의 製品을 一手로取扱케되엇슴으로 滿洲紛系의 特約店全部를 引繼케되엇다고

○京春鐵道는 創立되엇다 朝鮮의 産業資本을 掌握한 殖銀의 權力은 逐日 强大 殖銀이 부러가니까 그런지 有賀頭取도 점점 뚱뚱해저서 肥滿性이 顯著

○京春鐵道 初代社長은 牛島前內務局長

○總督府高官들이 殖銀傘下로밤버리하러 들어간다 하나식들식……

## 三億以上增稅說

◇……取引所制度複雜化

▲北濱情報＝今朝는 三億四千萬圓으로 一般豫想보다 巨額의 增稅計畫說을 傳하야 嫌氣助長이오 諸株一齊不良化하야 取引所株는 一面 取引所制度複雜化를 念慮하는 一面 取引所稅의 引上 株式移轉稅의 創設에 嫌氣하고 更히 二重監督의 念慮가 잇서서 買氣委縮이오 이軟材에 投物이 續出하야 九州側의 新東四千枚賣에 依한 暴落으로 鐘株整理에 拍車를 加하고 買崇되엇는데 日產系 諸株中心으로 不良이엇다

## 東新畢竟龜裂

### 百三十圓關門劑

十六日 百三十六圓八十錢에 買煽失敗한 東京東新은 今前場 百三十圓關門이 뜨게어저서 百二十九圓三十錢에 떠러져 戾價에서 七圓五十錢低로 戾幅의 四分三이 反落된터인데 再昨土曜以來의 東新崩落은 軟派의 賣叩로 因한것으로 格別히 惡材料가 잇는것이 아니나 찰아리 惡目은 買할것이라는말도 잇스나 伸키쌍한 屈이라기보다 形勢惡化로보이는點이 만타 卽

▲陸相態度注目＝陸軍이 主張하는 革新政策은 現內閣으로는 到底히 實現性이 업게되면 陸相은 그 進退를 明白히할것이라하고 八月에 入하야 國策具體的 協議에 들어가서 適當한 時期에 重大進言을 할것이라하야 重視되어 陸相의 進退問題는 即現內閣의 動搖를 招할것인것

▲藏入計劃樹立難＝陸軍의 前期三十二, 三億 海軍의 五個年二十億이라는 軍當와 國策歲出에 對하야 어느 程度로 公債에 依할것이며 增稅程度는 어떠케 定할것인지 또 軍需工業의 配當制限過分利得上納等이 어떠케될것인지 軍當와財政과의 關係가 어떠케調整될것인지 念慮가만흔것은

▲取引所問題＝取引所制度改正은 宿題로새삼스럽게 나온것이아니나 取引所의 大勢는 統制經濟時代에잇서서는 投機抑壓, 委託者保護로 會員組織에 進코잇는것 안이며 取引所株는 不絶히 嫌氣賣叩될運命에잇는것

東新本日步恢復

## 今年度米作은 "普通作"程度?

### 天候回復, 分蘗促進

【東京電話同盟】今年의 水稻作況은 未曾히 注目되는바 東北北陸地方은 未曾有의 大積雪季의 全國的氣溫低下等으로 今年의 水稻移秧은 當初부터 惡條件에 支配되드다가 例年보다 오래걸닌 雨期로 日照不足을 繼하야 全國水稻作況은 各地共히 分蘗이 進하야 憂慮되던 虫害發生도 別로업고 一般的으로 水稻作況이 普通作狀態에까지 되엇다 卽

冷害의 被害로가장 憂慮되던 東北北陸地方에서는 其後豫想外로 好調이고이 天候가 今夏中續되면 今年의 水稻作況은 全國的으로 는 或은 豐作의 域에까지 達할것이라고 보이기에 至하엿다

程度는 잇고 一時는 三次凶作이라하야 念慮되엇스나 今月十四日以來天候는 漸次回復되고 氣溫도上昇하야 水稻發育에 必要한 日照가繼續되며 發育도조케되고 二十日現在의 全國水

## 株式 增稅念慮 崩落

### 商況【二十日】

▲東新 一三三〇（寄）…

前場崩落 政局念慮, 取引問題로 休日올지난 今前場도 賣物續出하야 結局 休日前引에比하야 東新一圓二十錢低의 十圓丁, 大新一圓八十錢低의 七十一圓八十錢, 鐘新八十錢低인 五十八圓丁, 日產五十錢低인 十五圓八十錢에 各大引, 朝鮮三十二圓三十錢으로五十錢이 이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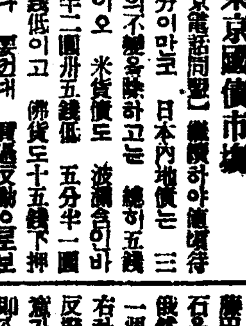
後場續落 後場은 東京前引低를이어 中旬貿易四百九十萬

## 期米 伸惱이나 反高

前場少强 再昨後場阪地三十三圓二十五錢止와 共히 三十一圓二十錢에 寄를止한 當市場은 一休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三圓二十一錢인 四丁反落을 據하고 三十一圓十八錢인二丁低로 寄를始한後 阪地三十五錢까지 反撥하야 五番同價를示한後 二十一錢에 止하엿을 作하야 四, 五節까지錢으로 二十一錢에 更落하야 寄를止하엿다

後場續强 後場은 三十一圓二十六錢에 五丁高로 始寄後 四節三十三錢에 反發되고 三十一錢에 止하엿다

㊑……取引所會員 組織化에 重點을 둔 最終原案이 決定되어 次期議會에 提出되리라 하야 東新昆蟲人氣濃厚로 崩落된 東新이 今前場은 東京短期商百三十圓關門劑 ▲國策轉換 增稅 一億圓程度增稅의 로 投機株에 人氣復活되어잇 것이 다시崩落 ▲東新마의獨歩 인듯하다…





㊊……一休今朝의各地市勢는 기대리는人氣

第一節의 小高으로 買方의甘味를 못하고서 依然十餘丁이나 反撥 ▲反撥의原因이 田中貞과 瀨政이 藤田의 中限買를 買代한것이라하면 此에 는 軟派로서의 恐怖할것이업 會것이다 ▲大勢는 仕手關係에 依하야 左右되는것은 아니다 天氣만 順調로히 나간다 면 相干仕手는 問題禍하지안 치 吳 ▲中部朝鮮은 雨量不足 으로 依然憂慮를돈지못하고잇 다 稍上의 豐大은 豐稀？學兆？不安莫高

## 大株廿二日後休

大阪株式取引所는 二十二日 正午後 株價 休場이고 그대신 八月十五日例의 社例祭로 長期休日 代로 後場休會임 其後場休會 休場 從來全休이다 取引을 中止키로되엇다

## 實物前場取引

▲東洋拓殖一二〇 ▲日窒一二〇 ▲大同產業二〇 ▲朝鮮中工業 ▲滿洲航空一三〇 ▲京南鐵道 ▲朝鮮雜載(?) 

##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同盟】國債市場은 二十日 沈滯 保合의 不鮮明 日本內地債는 總히 五錢 分半의 不變을除하고는 五錢 續落이오 米價債도 波濤合이나바 六分半二圓州五錢低 五分半一圓 七十錢低이고 佛貨도 十五錢下押 이엇다 買崇反動으로보

▲甲五分利 一〇一, 七〇 ▲乙回四分利 一〇二, 六〇 ▲佛貨四分利 一九八, 八〇

##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一, 七〇 ▲第二五分 一〇一, 一〇 ▲二五年 一〇一, 五〇 ▲一回四分 一〇一, 〇〇 ▲二回四分 一〇一, 〇〇 ▲米貨四分 …

## 今日財界（二十日）

◆米

仁川期米 先限 …

大阪期米 先限 …

正租（仁川）一等 …

◆市中金融

…

◆株

朝新 …

東新 …

日產 …

◆爲替 …

## 阪地俄然反撥

### 中限買屆代로

一休今朝의 阪地先限은 一昨日止値에比하야 四丁反落 中限은 三丁으로 新히 軟派를 誘하였으나 其後 當地中限을 二十丁反落으로 漸次 反撥 ……하야 阪仁共히 三十錢臺의 高價를 示하엿다 그 原因이 무엇에 在한가를 關合하여 보 면 阪地의 田中貞과 瀨政派도 …

## 政府米拂下는

### 明日에決定?

七月一日現在日本內地殘在米의 發表로 보아서 今後端境期의 不安이 업지아니하다 하야 政府는 米穀統制委員會에 百萬石程度의 買替를 要望하기로되어 明二十一日에 委員會를열고 決定하게되는데 大體 日本內地의 稻作은 今日의 現象으로보아서 豐作을 否定하지못하는때는 米穀의 減이 업지아니할것이라 云云

## 朝取期米取組內容

| | 實方 | 賣方 |
|---|---|---|
| 當限 | … | … |
| 中限 | … | … |
| 先限 | … | … |

## 堂島期米頑强

【大阪電話】買方玉整理一巡으로 人氣安定되고 市勢가 長步調에 轉하얏는데 今朝는 土用入天候良好로 賣人氣로되고 下寄이나 受米好買行을 傳하야 押目一巡으로 보고 强氣에 買進되고 軟派도 低價買込를 警戒하야 利喰를 急히하고 市勢는 逆行高이나 天候良好로 高價買物不添이오 一般이 二十一日의 委員會待의 態度이엇다

▲今前場主要賣買는 如左

賣方 東京側地場中東側

買方 海細自己地場來客側地場側

## 仁川在米增加

【仁川】去十八日現在 仁川在庫米는 精米로 比하야 合計米는 七, 八二一石의 增加를示하엿는데 在庫高를 細別하면 左와如하다

▲玄米（政）一七九, 五三〇叺 （民）三六五, 大一…叺 五斗入 一, 三三…叺 ▲白米四斗入 一, 一六八叺 五斗入 四〇叺 ▲正租…

▲米(?) 其他

## 各地正米

京城底堅 實物薄과朝米高 를 移하야 十錢高唱인 丸仁三等三十一圓十錢 四等三十圓八十錢 一等白米三十三圓五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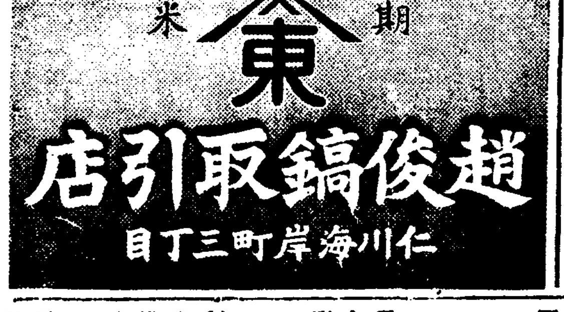
仁川少强 期米頑强을 갖고 十錢高唱이라 依然總傍觀人氣로 不敗하고 市場은 稀히閑散인 丸仁三等三十一圓十錢 四等三十圓八十錢 一等白米十三圓十錢

釜山不味 定期頑强이나 매며 賣念慮의 整理賣物이잇고 市勢弱保合이며 一般은 依然低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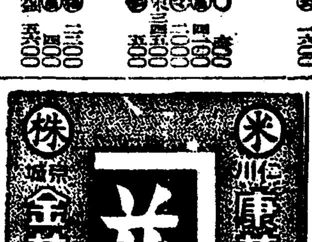
大邱頑强 實物依然하야 取引은 停滯이나 期米의 頑强을 移하야 十錢高唱인 丸ヶ三等三十一圓二十錢 四等三十圓九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三十錢

群山不變 日本內地人氣不利 振으로 依然人氣不立이오 僅히 精米組의 小口買가 散見되는 程度에 不過하야 市況이 稀히 閑散하야 丸ヶ三等三十一圓三十錢 四等三十一圓丁 一等白米十三圓八十錢

木浦强含 定期는 强調를 示하나 實物不引立으로 人氣氣迷이오 僅히 市勢는 實物薄으로 下支되어 保合인 ㊉ 三等三十一圓四十錢 四等三十一圓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丁







## 金融（二十日）

◆海外經濟◆（十八日） ◆朝鮮銀行券◆（十八日） ◆日本銀行券◆（十八日）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 ◆大阪金◆

◆對外爲替◆ ◆金貨入價◆ ◆東京市中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 米（二十日）

◆京城正米◆ ◆仁川正米大豆◆ ◆京城雜穀◆

## 綿（二十日）

◆京城綿米布市況◆ ◆京城綿布◆ ◆紡績糸◆ ◆鐵道綿◆ ◆朝鮮綿◆

◆日本麥粉市況◆ ◆滿洲商況◆ ◆大連特產市況◆

## 株（二十日）

◆朝取短期賣買高◆ 合計 四〇・二〇〇 累計 …

◆東京現株◆ 東株 三〇〇 同新 一三八〇

◆東京長期◆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 期米（二十日）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出來高 當 五・四〇〇 中 三六・〇〇〇 先 一三一・七〇〇石 合計 一七五・一〇〇石 本期總計 … 帳入高 當 三一・一〇 中 三一・一〇 先 三一・一〇

◆木浦期米◆ ◆群山期米◆ ◆釜山期米◆ ◆大邱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大阪期米取組◆ ◆大阪正米狀況◆ ◆大阪市中在米高◆ ◆各地正租市況◆（單位錢）

## 綿糸（二十日）

◆大阪綿糸◆ ◆大阪綿花◆ ◆各地人絹◆ ◆大阪人絹現物◆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外國爲替◆